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일시 2021년 **4**월 **14**일(수), 14:00 장소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일시 | 2021년 4월 14일(수), 14:00 **장소 |**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

주최·주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연구원

구분	시간	프로그램	
개회식	14:00~14:10 (10분)	**개회사**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환영사**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기조 발표	14:10~14:30 (20분)	**도시. 일상. 돌봄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부 주제 발표	14:30~15:00 (30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과 과제**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마을) 제주**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휴식	15:00~15:20	휴 식	
2부 토론 및 질의 응답	15:20~16:20 (60분)	**좌장** 지영흔 (제주대학교 부총장)	
		(토론1) 젠더가치와 문화다양성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2) 타자의 시선으로 본 도시재생	**유희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토론3) 일상의 안전 문제와 안심 생활환경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4) 일과 생활의 새로운 상상	**홍유경** (Lecord 대표)
		(토론5) 여성친화도시, 제주의 노력과 과제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3부 종합토론	16:20~16:40 (20분)	종합토론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목 차



개회사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07

환영사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08

도시. 일상. 돌봄 그리고 지속가능성 09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과 과제 25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마을) 제주 55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젠더가치와 문화다양성 79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2) 타자의 시선으로 본 도시재생 85

유희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토론3) 일상의 안전 문제와 안심 생활환경 93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4) 일과 생활의 새로운 상상 97

홍유경 (Lecord 대표)

(토론5) 여성친화도시, 제주의 노력과 과제 101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개회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 무 숙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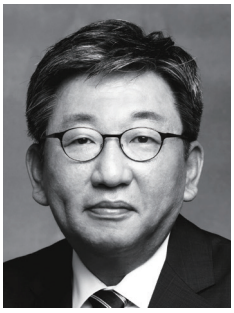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 상상' 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두 연구기관이 제주지역의 향후 10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오래전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대내·외 기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방향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의 안정성과 편리성, 쾌적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찾아내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살기 좋은 도시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세밀한 구상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기조발표를 위해 멀리서 오신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연구원의 엄상근 연구위원님, 본 연구원의 이해응 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을 맡아주신 지영흔 제주대학교 부총장님, 토론을 해주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유희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 홍유경 Lecord 대표님,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분의 발표자와 다섯 분의 토론자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훌륭한 의견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제주의 발전된 미래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오늘 이 자리가 도민 모두 행복한 미래 제주를 상상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제주연구원장
김 상 협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오늘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 상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 일상, 돌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해주실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님,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포럼은 여성, 가족, 아동이 살고 싶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가치지향과 선도적 미래 도시로서의 제주를 계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 그리고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중요성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성평등정책,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2012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10년간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 10년의 제주 미래를 계획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해 모든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있어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주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여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성, 가족, 아동, 노인이 살고 싶은 선도적 도시모델로서 제주가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연구하는 제주연구원과 포용적 정책연구를 개발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공동 포럼은 매우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합토론에서 좌장으로 훌륭한 논의를 이끌어 주실 지영흔 제주대학교 부총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토론자로 참석하시어 여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유희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 홍유경 Lecord 대표님,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14**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기조발표]

도시. 일상. 돌봄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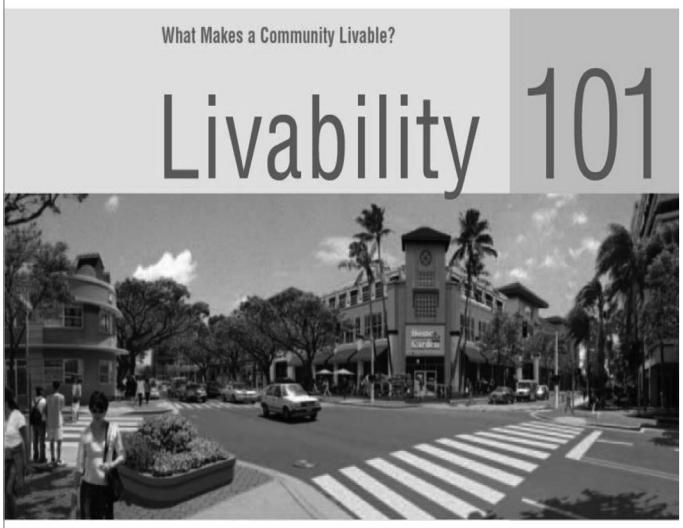
2021 4.14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도시. 일상. 돌봄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선영/서울시립대학교



살기 좋은 도시의 요건



AIA Principles for Livable Communities

1. 인간적 스케일
2. 선택여지의 제공
3. 복합용도개발
4. 도심의 보존
5. 다양한 교통수단
6. 활기찬 공공장소
7. 장소성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8. 자연과 개발의 균형과 자원보호
9. 경관의 보전
10. 우수한 디자인

도시의 경쟁력과 젠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변신과 젠더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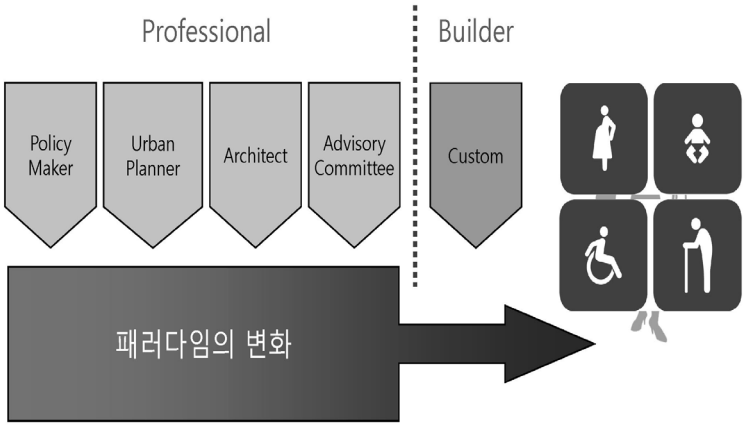


United Nations SDGs: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들

"No one left behind"

GOAL 1: No Poverty
GOAL 2: Zero Hunger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GOAL 4: Quality Education
GOAL 5: Gender Equality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GOAL 10: Reduced Inequality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GOAL 13: Climate Action
GOAL 14: Life Below Water
GOAL 15: Life on Land
GOAL 16: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
GOAL 17: Partnerships to achieve the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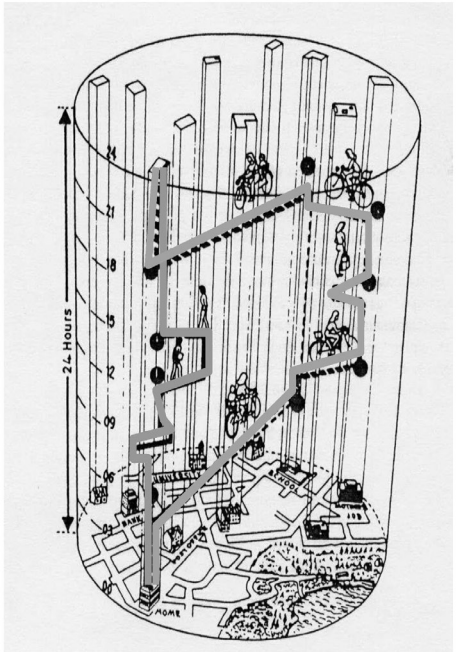
도시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공간의 성평등이 사회적 성평등의 척도
- 진정한 공공성을 갖는 도시공간의 핵심개념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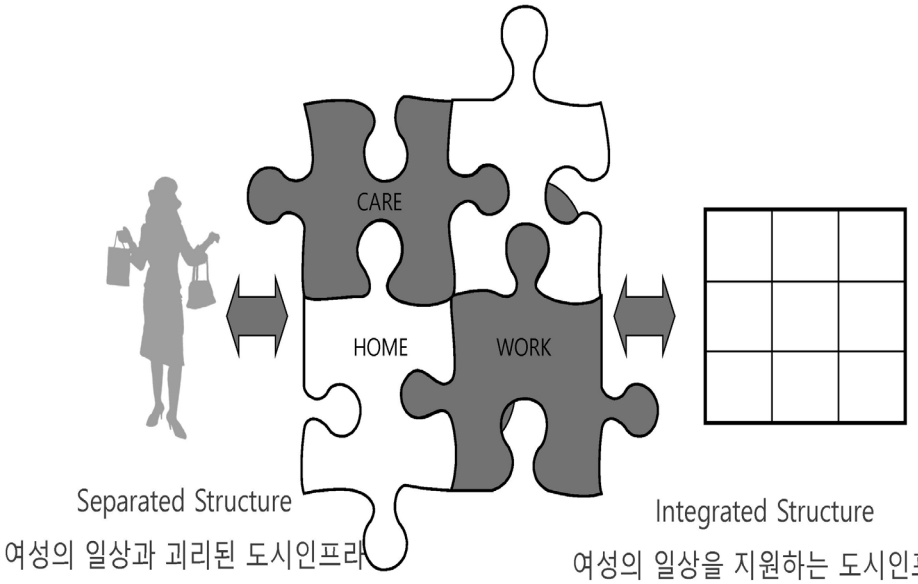


Gillian Rose, Women and Everyday Space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일상과 도시공간

- **CARE**
- **WORK**
- **HOME**

여성친화적인 일상의 도시공간구조



Separated Structure

여성의 일상과 괴리된 도시인프라

Integrated Structure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 도시인프라

성평등 도시공간 구성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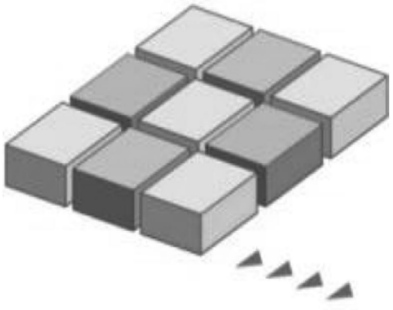
- 일/생활의 통합
- 커뮤니티서비스에의 접근
- 생활안전
- 연결된 이동성
- 참여를 통한 다양성확보



여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상 현안들

1. 조닝과 복합용도개발(Zoning/TOD/M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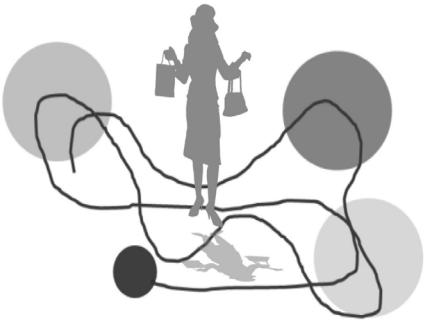
- 조닝위주의 도시개발과 접근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재문제
  (지불능력내의 교통비/ 합리적 운영시간 및 간격)
- 복합용도개발의 스케일 문제 (일상의 적정스케일로 분절된 네트워크의 필요성
- 입체적인 복합개발과 Public Eye의 수용문제 (CPTED)



여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상 현안들

2.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의 문제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성의 생업과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문제
- 여성의 파트타임 경제활동과 9-6 위주의 교통정책
- 여성의 다목적 교통수단이용과 제한된 접근의 문제



3.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 도시재개발이 초래하는 여성의 삶의 근거지 파괴 (일과 가정, 돌봄의 네트워크 붕괴의 문제)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가상승 및 주거비용 상승의 문제 (재정착과 도시외곽으로의 이주문제)
- 해당지역 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여성인력 시장유입의 장애문제



여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상 현안들

4. 도시주거정책(Urban Housing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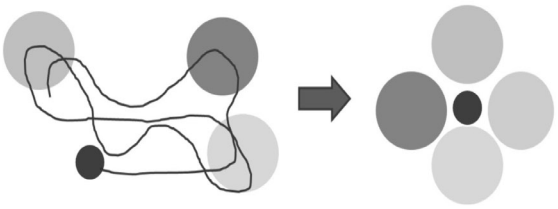
- 도심과 주거의 거리와 여성의 이동성, 접근성문제
  (시간측면에서 본 여성의 삶의 질)
- 도심의 일자리와 여성을 배려하는 주거정책 병존의 필요성
- 주거정책 입안 여성의 참여문제
  (독거노인,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자립적인 주거로의 이주를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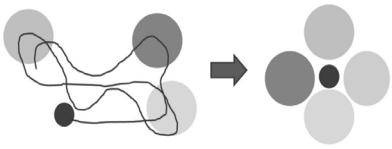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필수공간전략

- Principle 1. 커뮤니티 시설 집중의 원칙
- Principle 2. 커뮤니티 허브의 네트워킹
- Principle 3. 안전한 교통결절점
- Principle 4. 자연감시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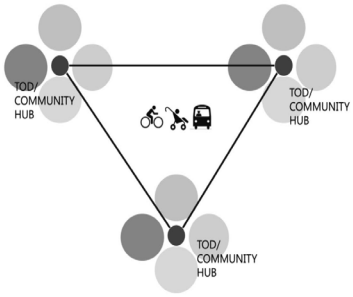


Principle 1. 커뮤니티 시설 집중의 원칙 Community Service Hub



- 대중교통수단, 보도, 자전거, 자동차가 모두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노드에 위치
- 스케일이 과다하지 않도록 근린의 규모조절
- 항시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도록 자연감시가 가능한 공간구성
- 돌봄과 관련된 보육시설, 주간보호센터 포함
- 삶의 질 향상, 의식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포함
- 커뮤니티행사에 활용 가능한 다용도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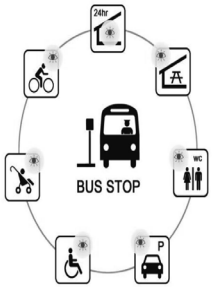
Principle 2. 커뮤니티 허브의 네트워킹 Networking of Community Service Hub



- 주거지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서비스 허브가 교통의 노드에 마련되어 일정거리마다 구성되는 네트워크계획
- 대중교통수단, 보도, 자전거, 자동차로 모두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시간 대에 제약 없는 이동 안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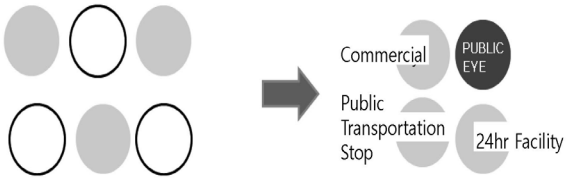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필수공간전략

Principle 3. 안전한 교통결절점 Transportation node as everyday safety zone



- 항시 이용가능한 화장실 (돌봄가족 동반시 이용)
- 일시적인 정차/주차가 가능한 구역
- 자전거/유모차로 연계가능한 렌탈구역
- 일시적으로 휴식이 가능한 벤치 및 쉘터
- 대기에 불안감이 없는 투명성 확보

Principle 4. 자연감시의 작동 Natural Surveillance (Public Eye)



- 안전한 도시환경의 일상적 영위를 위한 범죄예방설계 (CPTED)를 적용시킨 시설배치와 이동동선의 전략적 배치
- 생활가로 상 가시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공공의 시선 (public eye)의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의 안전성 유도
-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집약하여 배치

1. 친환경 지속가능성의 성지
3. 경관관리를 통한 어메니티의 확보
4. 지역성을 통한 독특성의 유지
5. 슬로우 라이프스타일 존중이라는 창조계급의 유입과 상생의 태도



관광객의 일상과 주민의 일상의 간극





여성과 가족이 살아갈 만한 지속가능한 도시?







여성과 가족이 살아갈 만한 지속가능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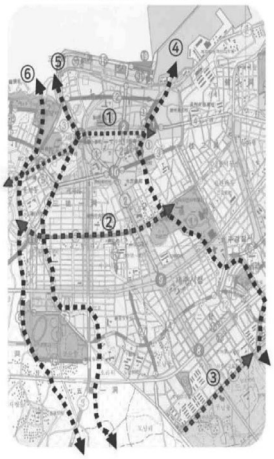
◎ 2030 제주 건축 · 도시 공간플랜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

자연적 가치

3대 하천 친화도시

3대 하천을 활용한 그린웨이 네트워크





자연친화보행도시

제주시에는 한라산에서 도심지를 관통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세개 물길이 있음. 하천은 도시조직과 파편적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그 도시생태하천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 그 하천이 도시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주원도심이 자연친화보행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



소생활권 활성화로 원도심 재생

공공공간 중심으로 작은 생활권의 보행환경개선, 거주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작은 생활권을 활성화하고 그것들이 하천과 생활가로가 만드는 그린그리드 조직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 도모

하천 변 보행로 연결	하천과 생활가로 결절점 입체적 연결	도로 다이어트	하천, 생활가로, 공공공간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
세개의 하천과 도시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천변 보행로 확보	세 개 동서 생활가로가 만나는 결절점에서 가로와 하천을 입체적으로 연결함	생활가로의 다이어트를 통하여 생활가로 보행환경개선	생활가로와 하천의 그린그리드 조직에 주변 공공공간을 연결시켜 보행네트워크 활성화

2-3

여성과 가족의 프레임을 통한 지속가능 커뮤니티 조성

1. 분절된 생활 SOC
2. 가시적 저층화
3. 자원의 공유
4. CP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5. 집약적 공공인프라의 이용
6. 밀도있는 네트워킹



일상과 돌봄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 제주 스타일을 통한 접근
- 맹목적 개발 주도에 대한 경계
- 닫힌 생태계의 수용량에 대한 고려
- 돌봄과 일상이 지원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주제발표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과 과제

엄 상 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방향과 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연구단 | 2021. 4. 14

*본 자료는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CONTENTS

Ⅰ 개요
Ⅱ 추진현황
Ⅲ 계획의 비전·목표·전략
Ⅳ 전략별 추진계획
Ⅴ 핵심 사업(안)
Ⅵ 집행 및 관리

Ⅰ 개요

1. 계획의 수립 배경
2. 계획의 위상과 범위
3. 계획의 특징
4. 계획 추진 절차



1 계획의 수립 배경

◆ 계획의 배경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시기 도래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1년 계획기간 만료**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 근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시기 도래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성 재정립

- 4차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도민 정책수요 변화,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
- 여건 변화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 영향을 반영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 재정립**

◆ 계획의 목적

Q1 미래 여건변화 대응	• 인구변동과 저성장시대,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등 도시 전반에 걸친 여건변화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제시
Q2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중장기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과 전략방향 제시
Q3 부문간 연계성 강화	•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계획과의 조화와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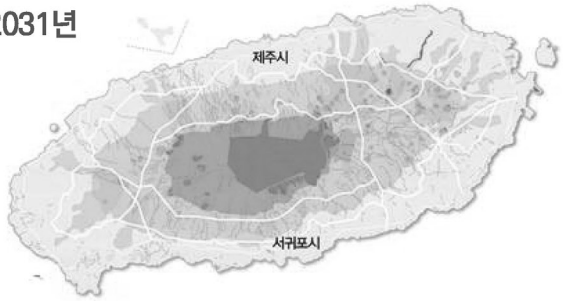
제주 현안이슈의 다각적 검토를 통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 계획의 수립 배경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9년 / 목표연도 2031년**
(계획기간 : 2022 ~ 2031)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면적 1,849 ㎢)



◆ **계획의 위상**

Q1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	• 중장기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의 역할
Q2 전략계획 및 종합계획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발전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이며 산업경제, 자연환경, 문화 등 지역의 전 부문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Q3 사업계획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핵심사업을 제시하는 사업계획

1 계획의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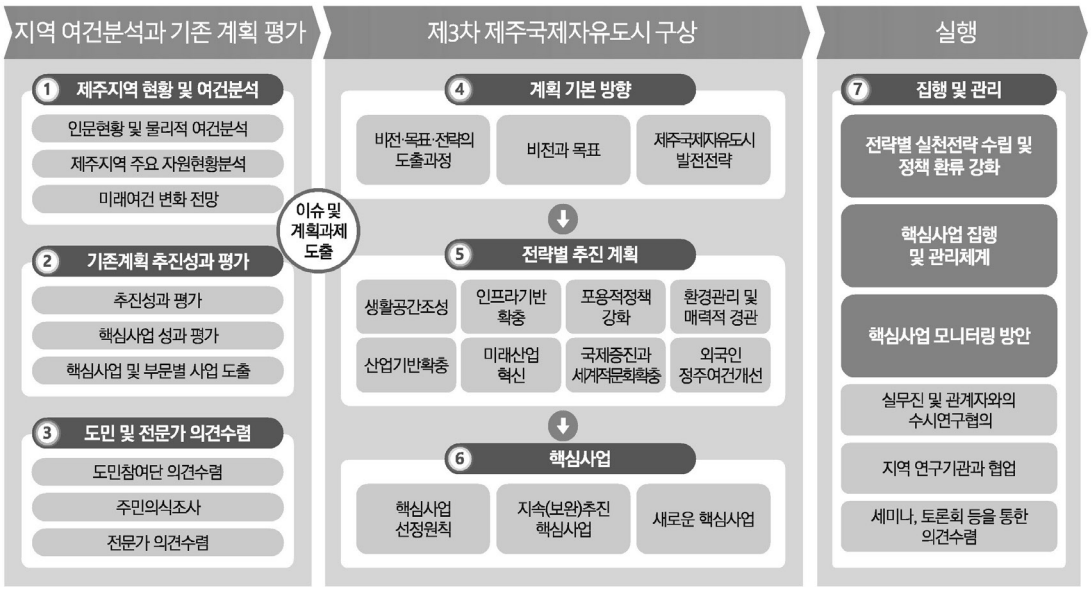
◆ **과업의 성격**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관련 부문·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

정책계획	사업계획	참여계획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제시자 역할	**핵심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가시적인 발전효과 기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과정 구현**
•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전략별로 부문·하위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 • 계획 모니터링-종합계획 평가를 연동하여 계획수립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 환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 기존계획 평가를 통해 실효성 높은 핵심사업 선별 • 일자리창출 등 도의 발전 효과가 높은 새로운 핵심사업제시	•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의 각 부서·도의회·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과 기업인·이민자의 의견 수렴 • 온라인 소통방 운영, 도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제주의 주요 이슈, 미래상과 핵심 가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공론화

1 계획의 수립 배경

추진절차



Ⅱ 추진현황

1. 기존 계획 추진성과 평가
2. 도민참여단 운영
3. 도민·관광객·행정실무진 의견수렴
4. 전문가 자문단 운영
5. 사업아이디어 공모전



1 기존 계획 추진성과 평가

◈ 평가 방향 및 추진체계

기존 계획 추진성과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3차 종합계획의 방향을 제시

배경 및 필요성

- 핵심사업 성과평가와 계획 평가로 이원화
  - 제1,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핵심사업 성과평가와 계획 평가로 이원화 함
  - 핵심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1,2차 종합계획 상 핵심사업(프로젝트) 추진 사업의 집행 이행도,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함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별로 12명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함

기존 계획 핵심사업 평가단구성

외부전문가	내부 연구진
7인 (도시, 건축, 행정 등)	5인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핵심사업 평가 추진 절차

구분		2차 수정
평가계획수립		• 종합계획 성과평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종합계획 성과평가단 구성 – 외부 평가위원 7인 + 내부 연구진 5인
성과평가자료 준비		• 핵심사업(프로젝트) 성과 평가 자료 준비 – 추진주체별 추진상황 취합 협조 요청(제주도청) • 계획 전반 평가(지표, 부문별 계획 등) 자료 준비 – 기존 1차, 2차 계획 성과평가 결과 정리
성과평가사전 검토		• 핵심사업(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사전 검토
성과평가	1차 서면평가	• 핵심사업(프로젝트) 성과평가 – 연구원 → 평가단 → 연구원 *평가단(외부전문가, 내부연구진) 검토
	2차 대면평가	• 핵심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대면평가 – 1차, 2차계획의 대상 39개 핵심사업별 사전검토 의견, 서면평가 의견 → 사업별 최종의견 수렴
	3차 대면평가	• 계획 전반 평가(서면 평가) – 1차, 2차 계획의 기존 평가결과 활용 – 평가단의 계획 전반 총평 • 계획 전반 평가(지표, 세부사업 등) – 기존 1차, 2차 계획 성과평가 결과 정리 및 3차 계획 방향
평가결과 작성 (지속(보완)추진/ 중단/ 완료/ 기타로 구분)		

1 기존 계획 추진성과 평가

◈ 핵심사업 평가방법

기존 계획 추진성과 평가단을 구성하여
39개 핵심사업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

핵심사업 평가방법

- 경제, 행정, 건축, 도시, 환경 등 전공별로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정량평가) 핵심사업의 추진(투자)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성평가) 3차 종합계획의 방향성과 일치성(청정, 공존, 미래, 도민복리 등)을 기본 전제로 하여 적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

핵심사업 평가분류

- 39개 핵심사업 평가 분류체계를 구성함
  - 지속추진/ 중단/ 완료/ 기타로 구분하고, 지속추진은 핵심사업, 부문계획, 개별사업 추진(기타 계획.정책으로 관리) 등으로 구분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부 연구진들이 39개 핵심사업에 대해 추진실적 등의 평가(정량) 및 평가 의견(정성) 등 사전검토 결과를 평가단에 제출하고, 평가단의 서면검토와 평가회의를 통해 평가분류

핵심사업 평가 기준(정성평가)

평가기준		내용
적정성	① 국제자유도시 부합성	• 핵심사업 목표가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부합하는가?
	② 도민수요 적정성	• 사업계획이 제주지역 특성 및 수요와 적정한가?
효율성	③ 예산설정 적절성	• 사업의 사업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④ 예산집행의 적절성	• 사업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지속가능성	⑤ 지속가능성	•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
	⑥ 친환경·확장성	• 사업의 효과가 환경친화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

핵심사업 평가 분류

지속(보완) 추진			중단	완료	기타
3차 종합계획 포함 (수정 및 보완)		개별 사업 추진			
핵심사업	부문계획	기타 계획.정책으로 관리			
()	()	()	()	()	()

1 기존 계획 추진성과 평가

◈ 핵심사업 평가결과

평가결과 지속(보완)추진 (핵심사업 8, 부문계획 14, 기타 계획 정책으로 관리 8), 중단 5, 완료 2, 기타 2 도출

핵심사업 평가 결과

- 39개 핵심사업 평가 결과 도출
  - 지속(보완)추진(핵심사업 8, 부문계획 14, 기타 계획 정책으로 관리 8), 중단 5, 완료 2, 기타 2 으로 분류

기존계획 평가를 통한 지속(보완)추진 핵심사업

- 중문관광단지 확충
- 쇼핑아울렛 개발
-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 제주헬스케어타운
-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 데이터센터
-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핵심사업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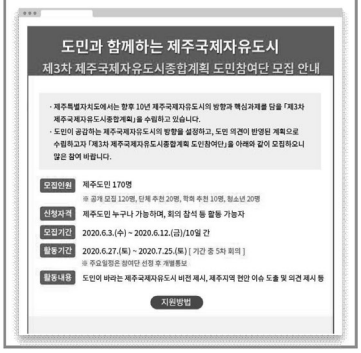
구분		핵심사업 (39개)	지속(보완)추진			중단	완료	기타
			3차계획포함		개별사업추진			
			핵심	부문	기타계획			
1차, 1차 보완 (10개)	핵심	1.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2.유망혁주거단지 조성			●			
		3.신화·역사공원 조성			●			
		4.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5.제주헬스케어타운	●					
		6.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					
	전략	1.쇼핑아울렛 개발	●					
		2.생태공원 조성					●	
		3.중문관광단지 확충	●					
		4.제주글로벌자유무역지역 조성				●		
2차 (12개)		1.랜드마크적복합리조트				●		
		2.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		
		3.Edu-MICE사업			●			
		4.IBER R&BD 클러스터		●				
		5.1차산업의수출산업화		●				
		6.제주신공항 건설						●
		7.제주투자은행				●		
		8.그린스마트시티 제주		●				
		9.e-스포츠 레저랜드사업				●		
		10.10만인력 양성사업		●				
		11.세계환경수도 조성			●			
		12.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2차 수정 (17개)	1. 환경자원 총량 관리체제(그린아일랜드)			●				
	2. 전략	2-1.창년랜크		●				
		2-2.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					
		2-3.데이터센터	●					
	3. 산업 육성	3-1. MICARE 빌리지 조성		●				
		3-2. 스마트 이일랜드(문화·관광자원 AR·VR 콘텐츠화)		●				
		3-3. 스마트 이일랜드 (이일랜드형 스마트시티 구축)		●				
		3-4.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					
		3-5.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				
	4. 산업 육성 지원 사업	1. 제주 가상화폐		●				
		2. ICT기술융합센터		●				
		3. ICT인재양성센터(제주청보융합기술원)		●				
		4. 스타트업 빌리지		●				
		5. 특성화고 · 마래중합대학 연계			●			
		6. 글로벌R&D통합지원센터			●			
		7. 투자진흥사구						●
		8.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2 도민참여단 운영

◈ 도민참여단 운영 개요

적극적인 도민 참여 속에 탄생한 도민참여단

- 공개모집과 추천 방식 병행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전체 신청자 : 225명 (도민 191명, 비영리단체 추천 17명, 학회 추천 10명, 청소년 7명)



지역별,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갖는 참여단 구성

- 총 모집인원 : 154명
  - 지역, 성별, 연령, 도내 거주기간 등 종합적으로 반영

일반 도민	비영리 단체	학회	청소년	총계
120명	17명	10명	7명	154명

지역	전체	남	여
제주시 동지역	66	33	33
제주시 읍면지역	21	12	9
서귀포시 동지역	11	7	4
서귀포시 읍면지역	22	15	7
계	120	67	53

계획 전(全) 부문에 대한 참여단 의견 수렴

- 현안이슈 발굴, 이상, 비전, 과제에 대한 회차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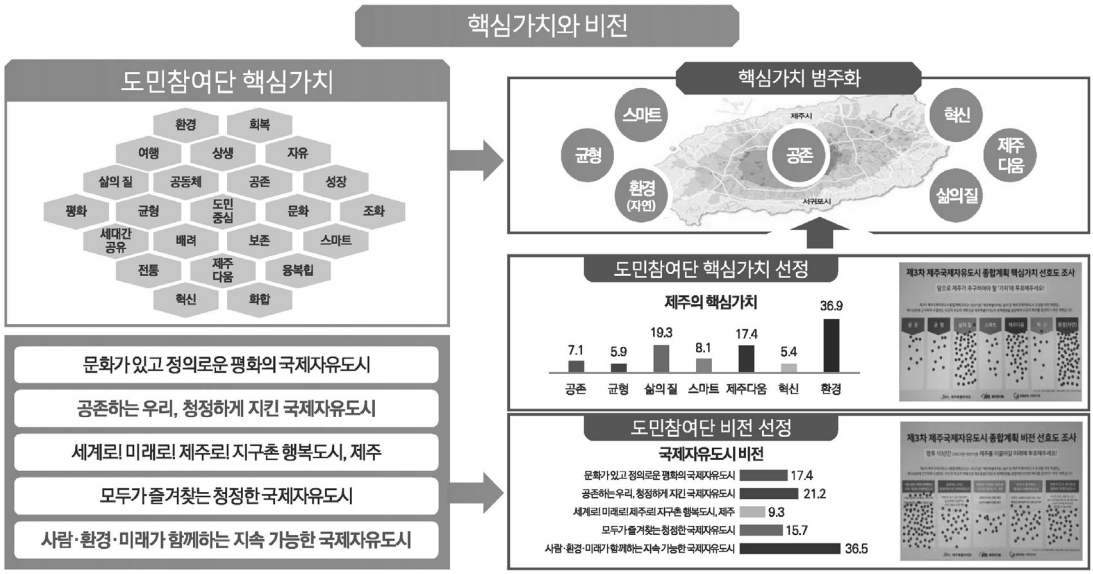
회차	주요 내용
1차	국제자유도시 개요, 도민참여단 운영방안, 위촉식 등
2차	국제자유도시 문제와 현안 이슈
3차	제주도민이 바라는 국제자유도시
4차	국제자유도시에 담아야 할 과제
5차	도민참여단 운영결과 종합 및 운영결과 전달식

- 6개 분과 운영, 분야별 심층 논의 진행
  - 주거/ 산업·관광/ 인프라/ 환경·문화/ 교육·복지/ 청소년



2 도민참여단 운영

◆ 핵심가치와 비전 선정



2 도민참여단 운영

◆ 주요 정책 과제

분과별 주요 정책 과제

주거
-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고밀도 개발 (무분별한 도시확장 지양)
- 공동 커뮤니티 건설
- 청년주거정책 확대
- 노후주택 재개발 등

인프라
-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확대, 급행버스 확대
- 도립의료재단 설립
- 비행기, 선박료 포함 입도세(환경세)부과
- 경전철 설치
- 상하수도 노후도 개선 및 시설확충 등

산업관광
-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제주다움의 가치 개발
-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관광, 산업개발
- 토종 종자 보존사업개발
- 해설사 전문 인력 육성 및 체계적 관리 등

환경·문화
- 난개발 지양
- 환경농업 활성화
- 환경보호체험 전문센터 신설
- 비닐봉지 사용 및 제작 금지 등

교육·복지
- 대학국제교육 특구화 (국제학교 추가유치는 찬반 대립)
- 중장년 응급복지 실현
- 산업별 인력교육 강화, 특성화고 활성화, 진로교육 강화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주민 여성 , 다문화가정 지원
- 이중 언어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
- 스마트 기술강화 (스마트팜)
- 환경보호 정책 확대
- 교육시스템 강화
- 청소년 인권, 교육, 복지 강화

3 도민·관광객·행정실무진 의견수렴

◈ 제주도민 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추출	조사기간
제주도민 1,003명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2020.8.11~8.23(13일간)

제주에서 불편한 점		• 일자리부족 14.7%, 기후문제 10.7%, 부동산가격 상승 9.8%, 온라인주문·택배 9.6%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산업·경제	• 청년일자리부족 30.5%, 성장동력산업 부재 23.6%
	환경문제	• 중산간·해안 난개발 25.3%, 해양쓰레기 21.2%,
	도시문제	• 이면도로협소/주차장문제 36.0%, 주택문제 26.6%
	교육·복지	• 취약계층 23.1%, 노인복지 21.3%, 국내대형병원 유치필요 14.9%
국제자유도시 사업 달성도		• 긍정답변 14.0%, 부정답변 86.0%
	제주도 발전에 끼친 영향정도	• 긍정답변 55.9%, 부정답변 44.1%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 청정자연보존/힐링산업 39.0%, 4차산업 융복합화 15.0%, 부가가치 관광산업 13.7%
국제자유도시 핵심가치		• 환경(자연) 35.5%, 제주다움 23.4%, 삶의 질14.6%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3 도민·관광객·행정실무진 의견수렴

◈ 제주 방문객(여행객) 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추출	조사기간
방문객 507명	편의추출	2020.8.11~8.23(13일간)

제주방문 유형	일행수	• 3~5인 43.2%, 2인 28.6%	유형	• 가족 48.8%, 부부 ·연인 25.5%
제주 방문의 행태	숙박형태	• 호텔 43.0%, 펜션 19.3%, 콘도 15.4%	만족도 72.2%	
	교통수단	• 렌터카 74.4%, 택시 17.6%, 버스 11.2%	만족도 59.2%	
	경비지출	• 100~200만원 39.4%, 200~300만원 19.9%, 300만원이상 16.2%		
인상에 남는 장면		• 깨끗한 자연 28.6%, 아름다운 경관 27.0%, 다양한 먹거리 14.8%		
불편한 사항		• 높은 물가 20.8%, 야간 즐길거리 부족 19.7%, 평이한 관광시설 16.8%		
제주발전에 필요한 일		• 대중교통 개선 18.8%, 공항/항만 확충 16.5%, 실내볼거리 15.9%, 야간관광 14.3%		
미래 제주의 이미지		• 세계생태도시 40.7%, 국제관광도시 32.6%		

3 도민·관광객·행정실무진 의견수렴

◆ 현안조사 및 워크숍 개요

- 3차례에 걸친 도내 정책 현안과 과제 조사를 통해 실제 정책 집행에 밀착된 정책이슈 발굴
- 1단계 전체적인 과업의 방향과 과업 내용의 범위, 추가 사항 등에 대해 부서별 의견 검토
- 2단계 부서현안 점검으로 정책 이슈의 대두 배경, 관련 현황, 정책 추진 시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정책 과제 도출
- 3단계 도출된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워크샵으로 의견 수렴 ➡ 부서 의견 반영하여 정책 과제 내용 개선

향후 지속적인 담당 부서 피드백, 과제 개선 진행

부서별 과업 내용 검토의견조사 ('20.4~) 및 부서 현안 조사('20.6)

- 부서별 과업내용 검토의견 조사
  - 전 부서 대상 과업범위 등 공람 및 의견 조사 실시
- 부서 현안 조사
  - 일시 : 6월 22일(월)~26일(금)(5일간)
  - 방문자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연구단(국토연구원·제주연구원·유신·청풍)
  - 17개 실국, 50개 과별 방문



부서별 워크샵('2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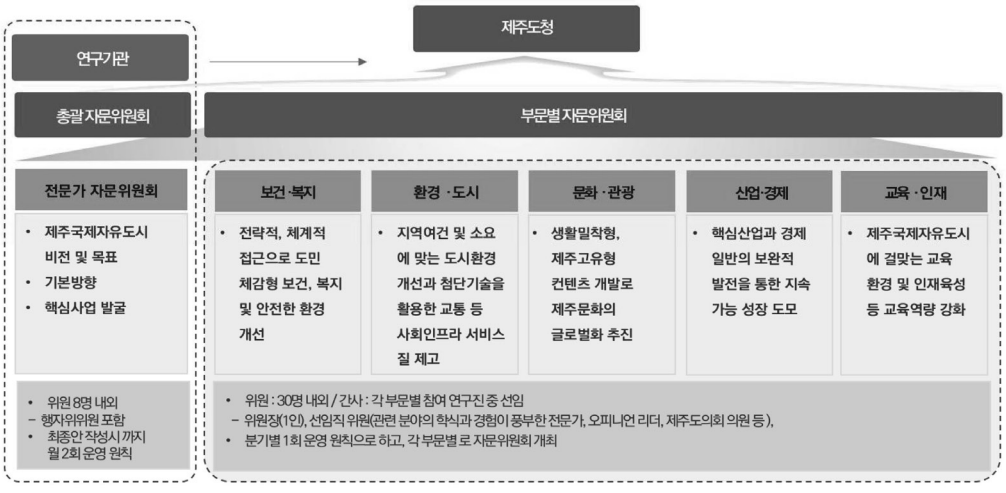
- 일시: 9월 23일(수)~9.25(금), 10.6(화)(4일간)
- 방문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연구단(국토연구원·제주연구원·유신·청풍)
- 17개 실국, 50개 과별 방문



4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전문가 자문단 운영 개요

각계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주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4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운영 현황

총괄자문위원회

- (역할) 국제자유도시 비전 및 목표, 기본방향, 핵심사업 발굴 등
- (운영계획) 월 1~2회 운영으로 서울~제주 교차 회의 진행
- (추진내용) '20. 6. 18(수) 1차 회의 기점으로 총 10회 운영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구 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
  - 비전·전략 및 부문별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전략별 계획 및 핵심사업(안) 발굴·검토 등

부문별 자문위원회

- (역할) 부문별 현안이슈 및 계획 도출
- (분야) ① 보건·복지, ② 환경·도시, ③ 문화·관광, ④ 산업·경제, ⑤ 교육·인재
- (구성·운영) 분야별 5~6인으로 구성하여 총 4회 운영
- (추진내용) '20.11.24~12.4 → 1차 회의 진행(부문별 원고 검토)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서면 자문으로 진행

- '21. 2월 중 : 부문별 자문위원 2차 회의 개최 예정





5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구성, 단체 참가 가능)

공모주제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 아이디어
  - 국제자유도시를 상징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기간
- 2021. 1. 4(월) ~ 2021. 1. 20(수)

공모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
타당성	30	사업도입 배경과 제안의 적합성
활용성	30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 및 실현가능성
효과성	20	제도 도입 및 대중화 기여도
창의성	20	기존 아이디어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 물, 주거, 쓰레기, 주차 등 생활·환경 관련 문제 해소 사업
- 교통, 물류 등 제주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1차산업, 제조업, 문화·관광 산업, 에너지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공모결과 총 55건 사업 아이디어 접수

심사계획

1차 심사
- 부적합 내용 탈락 (주제이탈 등)
- 수상작의 3배수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구진 합동 평가

↓

2차 심사
- 외부전문가 활용 (총괄자문위원회)
- 서면평가 진행
- 수상작 6건 최종선정 (나머지 20건 추첨)

↓

결과 발표
- 별도 시상식 없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Ⅲ 계획의 비전·목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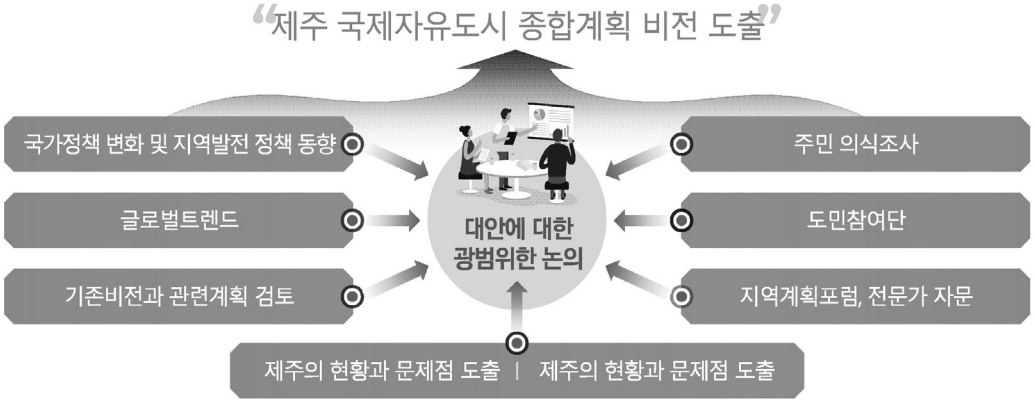


1. 비전·목표·전략의 도출 과정
2. 비전·목표·전략

1 비전·목표·전략의 도출 과정

◆ 비전설정 원칙과 도출과정

- 제주의 미래상 제시를 위해 비전설정 원칙을 마련
- 제주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잠재력과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정책 변화 검토
- 글로벌 트렌드 분석과 상위 및 관련 계획 정책의 연계성 확보
- 도민참여단, 주민의식조사, 전문가자문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핵심가치 및 비전 방향 설정



1 비전·목표·전략의 도출 과정

◆ 목표·전략 설정

- 현황분석을 통한 현안이슈 도출과 STEEP 분석을 통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정계획을 평가하는 등의 실증분석을 실시
- 도민참여단의 참여와 주민의식조사, 전문가자문위원회를 통해 계획이슈 도출과 미래계획방향과 정책방향성 도출



2 비전 · 목표 · 전략

◆ 비전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
- 제주도민의 삶의 질,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리,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지향

◆ 목표

사람	환경	경제	국제교류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행복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제주	**활력있고 상생하는 경제** 혁신제주	**세계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제주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추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 제주의 기반을 갖춰 삶의 질 제고를 지향	제주다움의 원천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천연자원의 보존과 활용성의 조화를 지향	농·임·수·축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굴, 지역과 기업 상생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스마트한 지능형 인프라 확충을 추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환경에 대한 국제교류 강화, 세계적인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2 비전 · 목표 · 전략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비전체계(안)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목표

사람	환경	경제	국제교류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행복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제주	활력있고 상생하는 경제 **혁신제주**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제주

전략

행복	전략 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전략 2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전략 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청정	전략 4	깨끗한 환경관리와 매력적인 경관 창출
혁신	전략 5	제주 산업기반 확충
	전략 6	미래 산업혁신 역량 제고
글로벌	전략 7	국제교류 증진과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반 확충
	전략 8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Ⅳ 전략별 추진계획



0. 전략별 추진 계획(안)
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2.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4.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관리 및 매력적인 경관창출
5. 제주 산업기반 확충
6. 미래산업혁신 역량 제고
7. 국제 교류 증진과 세계적수준의 문화기반 확충
8.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전략별 추진계획(안)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8대 전략 28대 부문의 추진계획 제시"

행복제주

전략계획 하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관리 강화
2. 균형발전을 통한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 마련
3. 도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4. 제주형 스마트 도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능형 재난안전 예측 및 첨단 대응 시스템 구축
6. 쾌적한주거환경및안정적인주택공급

전략계획 둘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1. 도로연계체계 강화 및 신교통수단을 통한 도시교통 혼잡해소
2. 물류 및 여객기능 강화를 위한 공항 및 항만인프라 확충
3. 국가물류 기간망 편입을 통한 물류 환경 개선
4. 자원순환 촉진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환경인프라 시스템 강화

전략계획 셋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1. 모든 도민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제주형 복지 실현실현
2. 세계적 수준의 의료·보건 역량 확충
3.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 교육 체계 구축
4.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청정제주

전략계획 넷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관리** 및
매력적인 **경관창출**

1.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강화
2. 청정환경을 위한 오염방지 강화
3. 제주의 경관자원의 관리·활용 강화

0 전략별 추진계획(안)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8대 전략 28대 부문의 추진계획 제시"

혁신제주

전략계획 다섯



제주 **산업기반 확충**

1. 농·임·축산업의 혁신기반 확충
2. 해양수산업의 동북아 경쟁력 강화
3. 제주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제주특성에 적합한 유통물류체계 고도화

전략계획 여섯



미래산업혁신 역량 제고

1. 천연자원의 가치 창출· 보전과 이용의 조화
2. 안정적인 제주형 신재생 에너지시스템 구현
3. 제주특성에 부합하는 바이오 산산업 육성
4. 4차 산업에 대응하는 디지털 신산업 육성

글로벌제주

전략계획 일곱



국제 교류 증진 과
세계적수준의 **문화기반** 확충

1.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 강화
2.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 조성

전략계획 여덟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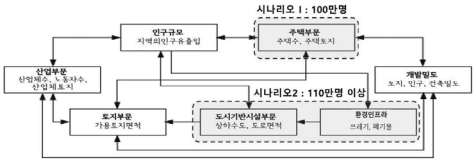
1.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및 국제적 서비스 체계 실현

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관리 강화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합리적 관리 방안제시

-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도시문제(주택,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도시관리방안 마련
- 시나리오 I(인구 100만)을 기준하여 주택시설 공급방안 마련
- 시나리오 II(피크인구 110만)을 기준하여 쓰레기,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공급방안 마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집중개발 및 비도시지역 관리방안

- 도시지역에 집중개발을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 유보용도인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으로 관리

2. 균형발전을 통한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마련

제주 4대 권역별 특화발전 추진

- 제주 4대 권역별 산업 및 인구 등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권역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되, 공간통합적(place-based) 관점에서 개별사업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추진

지역거점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및 자립적 성장역량 강화

- 고령화 등 인구감소 우려 지역은 집약적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쇠퇴에 대비하는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공간구조적 대응 강화
- 지역거점 간 연계를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발전 기반 구축

제주 지역발전의 지역주도성 강화

- 제주의 균형발전은 지역을 잘 아는 제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4대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추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마련

- 청정가치에 부합하는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을 마련

I II III IV V VI VII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3. 도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생활인프라 접근성 개선

-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프라 공급방향 제시
-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위해 무장애도시(barrier-free city)환경 구축

여성·가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사업 확대 추진강화

- 도시인프라 시설을 통하여 여성의 요구를 파악, 여성·가족친화적 도시 공간조성

4. 제주형 스마트 도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제주로 탈바꿈

- 지자체-기업-시민을 아우르는 일관된 추진체계의 전략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표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
- 정보화 마을을 스마트빌리지로 고도화하여 농촌 거주 도민 삶의 질 개선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및 정보보안 강화 방안 마련

5. 지능형 재난안전 예측 및 첨단 대응 시스템 구축

지능형 재난안전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

- 제주지역 재난안전 수준에 대한 연차별 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안전정책을 가이드함으로써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역량 제고하기 위한 종합 관리체계 구축
- 빅데이터·AI기반의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재해 관리체계 구축

첨단 기술 활용한 재난안전 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정보 정확도 개선 및 신속한 초동대응 유도
- 소방-경찰-응급병원 시설의 빠른 연계 및 소통을 위한 통신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안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활성화

- 도민 스스로 관리하는 마을 안전점검(위해요인 신고 등) 체계 구축
- 주민 참여형 음주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범죄예방형설계(CPTED) 가이드라인과 로드맵 수립

- 지역적 인문·사회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셉티드 로드맵 수립

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6.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정적인 주택 공급

건강하고 편리한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모델 마련 및 보급, 주거환경 조성
- 청정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는 심미성 있는 주택 및 주택단지 조성
- 주택개보수 활성화 및 노후주택 관리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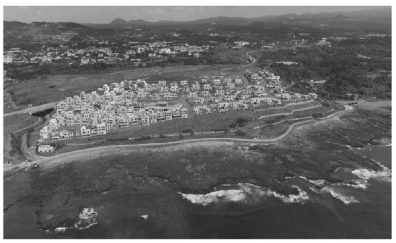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도내 자금 선순환 구조 마련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시장 안정 방안 마련
-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수익의 환수 방안 마련 및 도내 재투자로 선순환

빈집, 예래 주거단지 등 기존 사업의 조기 해결방안 강구

- 조례로 빈 집 소유자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 의무 강화, 빈 집을 활용하여 저렴주택 공급 및 젊은이/예술인 등을 위한 특수단지 활용 등 방안 마련
- 장기 미완공 건축물의 강제 철거 및 사업자 철거비용 부담 의무 조항 마련

청정, 친 제주 주거단지 조성 및 관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헬스케어타운]

2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1. 도로체계 강화 및 신교통수단을 통한 도시교통 혼잡해소

권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3계층 순환도로체계 수립

- 한라산을 중심으로 3계층의 순환도로 체계 수립
- 도민과 관광객, 화물의 권역간 효율적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도로를 연결하여 총연장 약 130km의 고속화 순환도로체계 수립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 읍면지역 등 인구 저밀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MOD : Mobility on Demand) 서비스 추진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 교통류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MaaS,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MOD 등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 자율주행차 및 탑승드론 등 차세대 교통서비스 운영

도시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트램(Tram) 도입

- 도시교통 문제를 저감하고 더불어 탄소중립, 도시재생, 관광도시 매력도 증진 등을 고려하여 시가지내 트램 도입

2. 물류 및 여객기능 고도화 를 위한 공항 및 항만 인프라 확충

공항인프라 확충

- 도민의 이용편의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하고 안전한 공항인프라 확충
- 제주국제도시의 관문으로서의 공항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

항만의 물류기능 및 여객기능의 고도화

- 항만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크루즈선박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쇼핑시설, 먹거리, 자연치유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화 발전전략 모색

3. 국가물류 기간망 편입을 통한 물류환경 개선

도내 및 도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체계 개선

- 중·소규모의 물류단지를 도내 및 도외에 각각 조성하여 운영

국가물류 5대 권역에 추가 신설 및 해상물류시스템 강화

-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 기간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2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4. 자원순환 촉진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환경인프라 시스템 강화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실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률 증대 필요
- 현재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확충하여 쓰레기 재활용률 증대
- 포인트를 통한 종량제 봉투에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 보상방법을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등으로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참여율 증대

쓰레기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퇴비·소각시설 건설

- 매립과 재활용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의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퇴비·소각시설 건설을 통한 매립제로화

해양쓰레기 소각 및 재활용 촉진 방안 필요

- 해양쓰레기는 과거 시설 고장 등의 위험으로 소각이 어려워 매립 위주로 처리하여 도 내 쓰레기 매립장이 과포화되는 문제 발생
- 해양쓰레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류는 오일화, 가스화, 업사이클 제품 등 다양하게 재활용이 가능함

해양유입 쓰레기 자원순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 쓰레기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를 통한 쓰레기 유입유출을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업사이클링을 통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추구
- 지방정부, 어업인, 폐기물 처리 업체, 재활용업체 협업 플랫폼 구축
- 해양쓰레기의 영향이 없는 바다 관리계획과 어업용 폐기물의 수거-처리 시스템 구축

음파센싱, RFID를 활용한 누수감시 시스템 구축

- 광케이블과 음파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인접한 상수관로의 누수를 탐지하거나, 상수관로에 RFID 설치 및 GPS 좌표 비교 등을 통해 상수관로의 누수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합류식 오수관로의 분류식 교체

- 합류식 분류관로로 인해 불필요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방지하기 위해 합류식 오수관로를 분류식 오수관로로 교체
-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시 RFID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1. 모든 도민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제주형 복지 실현

◆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제주형 사회안전망 구축

제주형 기본소득 등 제주형 복시 실행 시스템 구축

- 제주도민 기본소득제 검토 및 도입 추진
- 제주복지기준선 실행모델의 안정적 추진 체계 마련
- 재가중심의 노인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 다변화
- 제주형 긴급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분야 공공 책무성 강화 및 전달체계의 혁신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제주사회서비스원 역할 및 기능 구체화
- 공공-민간 자원 연계형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내실화
- 복지사무 및 예산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운영 활성화

도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자원의 접근성 제고

- 사회복지 시설유형 및 규모별 '사회복지시설 차별 제로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인프라 확대
- 권역별, 권역간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 스마트 복지환경 구축을 통해 쌍방형 복지 체계 구축

◆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고용 복지 실현

일자리 고용안정과 고용·노동복지의 선진화

- 고용취약계층 고용보험 확대와 맞춤형 지원제도 추진
-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 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전략 추진
- 미래인재 육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직업교육훈련 기회확대와 평생교육 보장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고용불평등의 완화 및 격차해소
- 임금제도 개선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존중
-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노동자의 자율성 보장
- 쾌적한 일터 환경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 직장내 폭력문화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사회적 환경관리

2. 세계적 수준의 의료·보건 역량 확충

◈ 의료서비스 혁신을 통한 도민 건강권 보장

도내 종합병원 및 병원의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한 도내 종합병원 및 병원 진료 역량 강화
- 생명 · 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재난 · 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응급 · 외상 · 심뇌혈관 · 감염병 등) 서비스 강화
-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전문진료센터(암, 암재활, 희귀질환, 호스피스 등) 지원육성
- 중증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방안 마련

공공의료서비스 인력 및 인프라 확충

- 제주의료원 특성화 전략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질 보장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도내 간호 인력확보를 위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의료 · 치유 · IT융합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산업화

- ICT 융합 기반의 원격진료, 원스톱 진료 등을 통한 도민 의료 접근성 강화
- BT관련 공공연구소, 글로벌 제약회사, 민간바이오 관련기업, 병원, 기타 서비스기업들이 집적된 제주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 지역사회 기반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건강격차 해소

- 읍면동별 주민건강센터 및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소외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 도서벽지, 산간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방안 마련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응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공립 정신건강병원 설립추진으로 도민 정신건강증진과 중독예방, 도민 마음 돌봄을 통한 행복 도모

지역공동체 기반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활성화

- 도민 건강검진 확대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 · 관리체계 구축
- 건강생활실천 확대를 통한 도민건강증진 사업확대

35

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3.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 교육 체계 구축

◈ 교육의 종합적인 질적 성장 방안 마련

제주도형 혁신 교육으로 공교육 체질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 IB 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하여 IT와 예체능 전문학교를 포함한 '교육 특화 도시 제주' 구현
- 생애주기, 교육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학습자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경쟁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유연화에 대응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관의 교육 역량 강화

미래지향형 인재 육성 체계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개정과 인재양성 계획 수립
- ICT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맞춤형 인력 육성
-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 기반시설 확충

도민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체계 구축

- 전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유.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는 세대별.대상별 교육 연계와 운영, 지원
- 도민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평생교육통합지원체제 구축

◈ 지역인재 육성으로 산업 혁신과 미래 발전 기반 구축

산학 연계를 통한 도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동력 확보

- 혁신기업과 도내 대학간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대학 내 혁신지구 등 대학이 지역혁신생태계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과 지속적인 직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기존 청년뱅크, 10만 인력 양성 사업 등은 지속 확대)
- 오픈컬리지 등 기업연계를 통한 현장형 교육 혁신 체계 구축
- 도내 기업과 연계한 우수 인재 확보 방안 마련

지역 대학의 지속가능한 혁신 교육 모델 발굴

- 도 내 대학 간 연계.연합 확대로 공동커리큘럼에 기반한 제주고유의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대학 간 상생 발전 도모
- 서비스지향의 첨단지식산업 등 특성화된 교육 내용 발굴
- 교육-고용-정주 연계 등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제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

- '국제학교-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국제 교육도시 확충
- 도민 참여형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커뮤니티 발전을 함께 도모

36

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4.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안전한 삶과 일·삶의 균형 실현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여성·아동 친화 도시환경 조성

- 마을·동 단위 생활안전 여건 개선을 통한 여성·아동의 일상 안전망 강화
-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 여성폭력 예방 강화 등 여성·아동 폭력 방지 및 폭력피해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의사결정구조, 노동환경의 성차별 개선을 통한 일·삶 균형 실현

- 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 지역돌봄공동체 확산,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남성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일·삶 균형 실현
- 도내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비율 실태파악과 여성 비율 증대 방안 마련



〈제주 여성친화도시 확대〉


〈여성친화도시 구현〉

◈ 지역사회 전반에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온라인 성인지통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제주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확산 등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및 결산 제도 운영 내실화
- 도, 실·국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강화
- 정책권고제 및 이행점검 실행력 강화 등
- 성평등정책관 집행권한 강화 (2~3급 권한 부여, 도 실·국장 인사 청문회 성인지 감수성 역량 진단

*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개선 이행률 80% 달성, 성인지예산 결산 규모 확대, 도 주요 기본계획 10건 이상 성별영향평가 실시, 공무원 성평등의식 수준 제고(5급이상), 정책권고 이행률 80% 달성, 성평등정책관 2~3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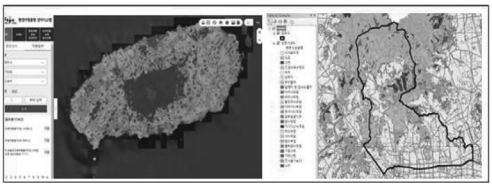
4 깨끗한 환경관리 및 아름다운 경관 창출

1.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강화

◈ 환경총량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2년 이후 완료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의 실행 체계 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활용 가능한 지침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체화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주지역 도시생태현황 조사,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대표 및 우수 비오톱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존자원 조례에 명시된 보존 자원 조사 등을 함께 실시하여 관련 데이터 종합화


〈환경자원총량도〉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사례〉

◈ 제주도의 우수 자연자원 보전 강화

우수 자연자원 보전 및 보호지역 지정 확대

- 자연자산의 체계적 관리방안으로 습지보전계획(2022~2026년) 수립을 통한 습지보전지역 지정
- 보전지역(습지보전지역, 절 · 상대 보전지역, 생태계관리지구 1, 2등급 등)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근거 제시
-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 · 도립 공원 지정
- 곶자왈 보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사유지 매입
- 용암동굴 발굴을 통한 지정문화재 등록을 위한 조사 및 종합 관리 추진

자연자산 관리 책임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 부담금관리법 개선 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제주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방향과 예산 및 회계 처리 기준 마련
- 환경보전기여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효과 분석 체계 마련
-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체계 구축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 멸종위기 식물 보존, 한라산 식물 복원, 제주 특유 식물 보호
- 생태계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강화, 외래생물 정밀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2. 청정환경을 위한 오염방지 강화

◈ 제주도 생활환경,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강화

오염원별 모니터링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추가 설치 및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 체제 구축
-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 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 토양환경 측정망 개소수 확대 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응 체계 구축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기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가축분뇨 선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분뇨설치시설 설치기준 강화
- 액비살포 신고필지 관리 강화 추진
- 정화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강화 등 추진

기후변화 등 해양 환경 변화 및 오염원 대응 강화

- 해양수온 변화 및 전체 해양환경의 변화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구축
- 드론 및 처리 전용선박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시스템 사업 추진

◈ 생활환경 체감 환경 이슈 개선 추진

감각공해 등 신규 환경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 소음지도 작성,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자동환경소음측정 등 소음 저감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진동 및 악취 등과 같은 감각 공해의 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속 유해인자 관리

- 석면, 전자파 등 생활주변 유해인자의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 빛공해 등 국민 실생활 속 불편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위해성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와 도민건강 피해 예방

4 깨끗한 환경관리 및 아름다운 경관 창출
I II III IV V VI VII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3. 제주의 경관자원의 관리·활용 강화

◈ 제주경관자원에 대한 도민의 경관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

제주경관헌장을 제정하여 제주경관의 방향성 및 도민 공감대 형성

- 아름답고 건강한 제주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의 자연경관·도시경관·역사문화경관 등을 포괄하는 "(가칭)제주경관헌장"을 제정
- 행정,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제주경관헌장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과 관광객 등의 의견수렴 절차 진행
- "(가칭)제주경관헌장"이 제정될 경우, 이를 중심으로 제주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협정 등이 위계와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

제주 10경 등 대표적 경관자원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보전·관리

-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을 담고 도민이 공감하는 "(가칭)제주 10경" 등 대표적 경관자원을 선정
- 제주 대표경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마련
- 자연경관·도시경관·역사문화경관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초단위 경관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감귤밭에서 바라본 한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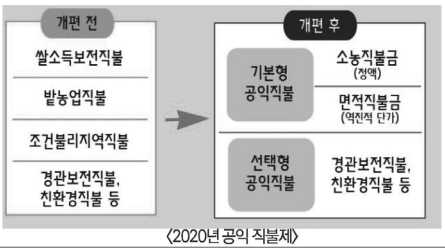


〈푸른바다 위의 일출봉과 우도〉

◈ 경관작물 등 농어촌의 경관자원 보전 및 관리 강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활성화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마을경관보전 활동을 통하여 농어촌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활성화
- 제주를 대표할 만한 경관작물(메밀,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과 준경관작물(청보리, 밀, 호밀 등), 준경관초지작물 등을 추가 발굴하고 농가에 기술지원
- 공익직불금 중에 경관직불금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농가 및 마을경관보존협의체에 지불되는 직불금의 현실화 및 지불체계 정비
- 마을과 경관작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연계 가능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020년 공익 직불제〉

1. 농·임·축산업의 혁신기반 확충

제주 농업의 다기능성 강화 및 활용
- 농업기반직불제와 마을단위직불제 등 공공 지원 도입
- 농업 경관의 관광자원화 및 사회적 농장 등 사업화 지원

미래세대 소비 변화에 대응한 청정헬스푸드 산업 육성
- 제주 청정 농산물 가공을 위한 창업 지원 및 식품가공제조 센터 설치
- 제주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외식 · 가공 로컬푸드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 강화
- 기후 온난화 대응 신규 작물 연구 및 보급
- 이상기후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팜그리드 시범단지 설치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활성화

미래농업 경영인 육성
- 4차산업 기술 및 식품가공 교육센터 설립
- 다기능 농업 활용을 위한 청년 리더 육성
- 해외 농업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 농업을 위한 디지털 경지정리
- 농업 관련 정보의 디지털 경지정리 사업 및 노지 농업의 스마트화 추진
- 디지털 경지정리와 실물 경지정리 사업의 병행 추진

임산물 ICT 융복합 스마트팜 구축
- 임산물 ICT융복합 스마트팜 구축
-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지원 강화
- 표고, 산양삼 등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보급
- 생약 및 한약재 산업 육성
- 산림치유 공간 확대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 한라산 둘레길 및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

제주 친환경 안전·안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 축산환경 및 생산 · 가공시설의 개선
- 안전 · 안심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예방중심 상시방역체계구축
- 제주산 축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고품질 축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사업
- 우수종축의 검정, 종축관리 및 육성보급체계 구축
- 제주 말산업 활성화 및 창업 촉진

5 제주 산업기반의 혁신
I II III IV V VI VII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 해양수산업의 동북아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
- ICT를 접목한 총허용어획량제(TAC)제도 강화 및 대상 어종 확대
- 해중림 조성사업 확대
- 스마트 양식 Test-bed 구축

한·중·일 공동어업 및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관리센터 구축
- 어업자원 관리는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 3국간 공동어업 관리를 위한 센터 구축

수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
- 산지위판장 유통환경 및 시설 개선
- 유통품질 개선 및 인증제도 마련

여성, 외국인 등 수산업 인적 역량 확충
- 여성친화적 수산업 여건 강화
- 신규 해녀육성 및 복지강화
- 외국인 선원 고용 여건 개선
- 수산공익직불제 등 도입



3. 제주 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1)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혁신역량 제고
- 제주 관광 질적성장 제고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 제주관광품질인증제 도입
- 제주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휴양형 관광산업 육성
- 청정 제주자연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브랜드화 및 청정 프로그램을 개발
- 느림의 길 조성 등 특화 도로 구간 개발
- 제주해녀축제 개최 등 제주 컨텐츠를 활용한 축제 발굴
- 섬관광 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용천수 등 체험프로그램 강화
- 산림융복합 및 산림휴양 · 치유단지 조성

스포츠 관광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부가가치 스포츠 관광 육성
- 전지훈련 팀 유치 확대

안전한 제주관광수용태세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책임관광 육성
- 책임관광 시장 세분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새 일상 시대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 확립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위기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제주 산업기반의 혁신

3. 제주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2)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치유관광목적지 구현

- 안전여행을 담보하는 관광객 트래블 스루 플랫폼 구축
- 새로운 관광시대에 대응하는 제주형 관광벤처 육성
- 마을공동체에 함께하는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 치유(힐링)이 있는 숨어있는 관광자원 개발

스마트 제주관광을 위한 기반 강화

- 제주다움의 콘텐츠와 4차산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
- 스마트관광을 위한 관광정보 안내체계 강화 및 지역특화 글로벌 콘텐츠 구축

공유경제 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 공유경제의 다양한 자원 추가 발굴
- 공유경제 자원간 연계 서비스 강화

제주관광 혁신적 도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관광3법의 실질적 권한 이양
-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특례 조항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의 법적 지원 강화

4. 제주특성에 적합한 유통물류체계 고도화

상권별 고유브랜드 개발 및 특성화

- 골목상권별 특성화로 지역상권 육성
- 도심재생산업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유통·물류 구현

- 4차산업혁명 기술의 상권 적용 보급 지원
- 공동물류센터 조성

물류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지원

- 물류거점시설의 정비 구축 및 물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물류표준화 및 활성화 추진, 물류활동 유형별 데이터베이스화
- 탄소없는 섬 기반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4차산업 물류 시스템 구축〉

6 미래산업 혁신역량 제고

1. 천연자원의 가치창출·보전과 이용의 조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추진

- 3대 제주 해양분야(해양관광, 생태·치유, 해양산업) 지원 활성화
- 해양바이오 리서치파크 조성 추진

해양관광·레저 특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동북아 거점형 마리나항 조성
- 제주도의 해중 생태경관공원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센터 조성

용암해수를 활용한 해양치유 및 해양에너지 산업 육성

- 용암해수와 제주연안의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 용암해수를 활용한 아토피 치유센터를 조성하여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추진
- 염수와 담수의 염분차를 이용한 염분차발전, 파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민간보급 확대

기후·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최남단 입지여건을 활용한 해양환경 및 오염원 관리 강화
- 해양환경 변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안정적인 제주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현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계획의 지속적 추진 및 지원 강화

-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지원 강화
- 제로에너지 도시 건설 추진
- 2050국가탄소중립실현을위한그린뉴딜선도특구추진
- 전전화건물기반의마이크로그리드구축실증및확산
- 신재생최적운전을위한 CFI통합운영관리시스템구축
- 화석연료관련산업연착륙및전환지원강화
- 농·어업분야화석연료감축및잉여전력소비수요창출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 지역유형별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발전소와 배전망운영자제도 등 실증 추진

도민참여 에너기 거버넌스 구축 확대 및 교육·홍보 강화

-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CFI 성공모델 창출 및 세계화

- ODA사업을통한CFI모델의해외수출
- 글로벌에너지전환네트워크구축

6 미래산업 혁신역량 제고

3. 제주특성에 부합하는 바이오 신산업 육성

소비수요 맞춤형 바이오 신기술 / 신제품 개발

- 제주원료 브랜드화
- 맞춤형 바이오제품 개발
- 바이오 신기술 연구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바이오융합산업 육성

- 스마트 뷰티(Smart Beauty) 산업 육성
-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업간·업종간 융복합 촉진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 비대면 맞춤형화장품 뷰티서비스산업 육성
- 인디뷰티브랜드 육성 및 클린 뷰티 산업 육성

제주바이오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주 T-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 제주원료/제품 인증제도

4.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신산업 육성

제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 스마트·ICT기술로 활용한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1차산업의 생산·관리·유통의 스마트화로 新시장 창출
- 문화·관광의 디지털 전환·혁신 통한 산업역량 확대
- 디지털혁신을 통한 정주인프라 개선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및 드론 연구단지 조성
-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추진

신재생 잉여에너지에 대한 서비스 모델 구축

- 제주형 에너지 맞춤형 정보 유통서비스 구현
- 다양한 사업 모델의 실증 강화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STO/IEO 거래소 설치 및 국내외 투자 유치
- 산업 전반에 대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 및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생태계 구축 지원

- 디지털 분야 기술 창업 촉진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디지털 관련 분야 인력 양성
- 디지털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규제 정비

7 국제교류 증진과 세계적수준의 문화기반 확충

1.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 강화

◈ 도시외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해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실질교류 강화 및 교류지역 다변화

-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확대・강화시켜 나가되 단순한 우호친선교류를 넘어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확대 강화
- 섬도시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가칭) 글로벌 섬 네트워크' 결성 추진

세계일류 포럼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주포럼 경쟁력 강화

-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럼 개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평화담론을 선도하고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인 해외지역 포럼 개최 추진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

지방정부간 협의체 등 다자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동북아 자치단체연합(NEAR), 아시아태평양도시회의(APCS) 등 국제기구 활동을 제주정책 홍보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도시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
- 지구촌 평화 어젠다를 주도해 나가는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구축
- 제주만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제주형 평화 ODA 사업 발굴 및 추진

◈ 국제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 플랫폼 구축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자적 전략 수립

- 해양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제시범조시 조성
- 동북아 중심의 크루즈 노선 발굴 및 기회 활용이 필요
- 'CJK(Clean-Jeju-Knowhow)' 사업을 통한 아세안과의 환경기술 협력

제주의 강점과 특색을 반영한 국제기구 설립·유치 및 국제회의 제주개최

-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국제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

- 제주지역 국제교류의 민관협력 플랫폼 역할을 위한 제주국제교류센터(가칭) 설립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 영어교육도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UNITAR), ICC제주, 제주혁신도시 등 서귀포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국제평화 및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

7 국제교류 증진과 세계적수준의 문화기반 확충

2.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 조성

◈ 향토문화보존을 위한 제주문화 확립

제주의 역사, 언어, 민속 등 제주문화 진흥 지원 강화

- 해양자원, 육상자원, 인문자원,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인문학과 문화예술 융합 사업을 통해 문화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인문자원 공유 및 개발 지원

* 마을기록화사업, 로컬리티 규명사업 등

- 의식주, 생업활동, 세시풍속, 일생의례, 민간신앙, 마을기록물 등 전통지식과 생활문화 분야 실태 조사
- 제주어의 문자기록화 및 상용화 지원 확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아카이빙 구축

- 문화예술, 전통문화, 신화, 유래동화, 해양문화 등 지역기반의 자원들을 발굴하여 콘텐츠 자원화
- 제주이주민 대상 문화개방성 선도프로젝트로 공존하는 제주만들기 실현
- 미래유산 제도 정비 및 활용



〈제주신화 활성화〉

◈ 새로운 문화진흥, 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4차 산업에 따른 융·복합 문화 촉진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함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 실감형 콘텐츠 전시, 체험, 공동제작 공간 지원 등

- 4차 산업혁명 콘텐츠 관련 인력 양성 지원 및 인력 확보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도내외 기술인력 네트워크 강화

비대면 사회를 대비한 문화 콘텐츠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 제주 문화콘텐츠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과 제주형 OTT(over the top) 플랫폼 구축
- 비대면 사회를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 채널 지원
-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지역 거점형 문화 특화 콘텐츠 육성

- 지역의 콘텐츠관련 청년기업, 사회적 기업, 소규모 기업과 스토리텔링클럽, 산업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이 협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여가생활 기반) 플랫폼 구축
- 현장 맞춤형 예술 매개자 교육 시스템 운영 및 현장 활동 기회 제공

I II III IV V VI VII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7 국제교류 증진과 세계적수준의 문화기반 확충

2.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 조성

◈ 국제적 수준의 문화콘텐츠 구축

국제 수준의 미술관, 음악당, 박물관 등 제주 분원 유치

- 국제적 미술관 유치로 해외 미술 관광객 도입 및 제주도민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국제적 미술관은 해외 분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 가능함 (미국 구겐하임미술관, 현대미술관(MoMa, 프랑스 루브르, 퐁피두 센터 등)

- 고품격 공연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도시에 걸맞은 음악예술 공간 조성

* 오페라, 클래식 등 전문음악당 설립과 제주지역의 신화, 설화, 전설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제적 홍보 및 보급 활성화

- 제주도립미술관과 연계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제주분원 유치



〈구겐하임 빌바오 분관〉



〈구겐하임 아부다비 분관〉

국제아트페스티벌 연계

- 제주도립미술관과 연계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제주분원 유치
- 국제평화포럼 연계 국제평화아트페스티벌 콜라보 프로젝트

* 약 2-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혹은 2024년에 최초의 시범축제로 출발하여 지속되는 축제로 정착

◈ 인력양성 및 문화예술인 지원

예술창작 환경 개선을 통한 활동 공간 및 인력 양성

- 국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 확대 및 예술품 유통 통합 시스템 운영
- 청년층을 위한 창작형 문화공간을 '아트박스'형태의 공동체 단위로 지원
- 예술 장르 간 소통과 융합이 가능한 융복합적 창작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융합예술 활동과 소규모 예술축제가 가능하도록 지원
- 현장 맞춤형 예술 매개자 교육(전문가)과 예술 동호인들이 실질적인 훈련과정을 거쳐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현장 지원 제도 강화

제주도민 아티스트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 제주도민의 표현예술(연극 등) 생활화를 위한 소극장 운동 지원
- 도내 예술경영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예술인과 영세 예술인단체 컨설팅 지원
- 지역 유휴공간의 문화거점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문화거점들을 조직화하여 마을단위의 문화거버넌스 구축
-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ODA사업 추진

8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1.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및 국제적 서비스 체계 실현

◆ 근린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삶의 질 향상

외국인과 도민들의 교류가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

- 국적, 민족, 소득 등 차별 없는 주거지 융합
  * 저소득층 등 열악한 조건의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는 주택공급과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내 융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화적 선호와 체류목적에 따른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
  * 문화적 차이에 따른 주거 공급과 체류 형태에 따른 단기, 장기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수준 확보
- 비즈니스로 인해 체류하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확보
  * 국제적 교류 활동으로 인해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호텔, 임대형 주택, 기숙사 등 다양한 주거시설 확보

외국인이 교육과 의료에 걱정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영어 이외에 다양한 언어 사용이 가능한 국제학교 유치
- 외국인의 불만족을 최소화하고, 차별적 대우가 없는 의료 환경을 구현
-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정보 접근성 보장
- 외국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친화적 병원 환경 및 서비스 제공
  * 통역이나 제3차 도움 없이 국내 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국어 서비스 지원(자료, 표지판 등)

◆ 글로벌 서비스 지원을 통한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다문화 교육 실시 및 지원

-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과목으로 다문화교육 편성
-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접촉을 통한 도민의 국제적 감성 함양에 기여
  * 다문화 교류의 날 지정을 통한 도민-외국인간 교류 체계 확립 및 활동 지원

외국인 지원 확대 및 App 개발

-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 서비스와 전문 컨설팅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허브 지원센터 확대
- 도내 스타트업을 활용한 외국인 전용 서비스(통역, 교통, 일자리 등) 지원체계 및 App개발

원활한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을 위한 DB 구축

- 제주도내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신원조회 및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DB 구축
- 노동인력 부족상황을 조사하고, 제주도 주요 산업인 농림어업에 우선적으로 노동력 공급하는 체계 확립
  * 쿼터제 등을 통해 급격한 유입은 방지하되 고급인력의 유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시

49

Ⅴ 핵심 사업(안)

1. 핵심사업 선정 원칙
2. 핵심사업(안)
3. 도정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한 검토사항
4. 추가 검토사항



1 핵심사업 선정원칙

◆ 핵심사업 선정원칙 고려사항

1) 단순 제도개선사항이나 사업규모나 효과가 작은 사업들은 제외
*단순 제도개선사항은 집행 및 관리에서, 사업규모나 효과가 작은 사업들은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
2)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구상하는 단계에서의 선정원칙을 제시
*구체적인 사업구상안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단계가 아닌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개략적인 구상을 제시하는 단계임을 고려



◆ 4대 선정 기준

01 효과성	• 사업집행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
02 실현가능성	• 사업이 실제 채택되어 집행될 수 있는 정도
03 추진체계 및 주민참여	• 해당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체계와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동의 정도
04 시급성	• 핵심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의 정도

2 핵심사업(안)

◆ 핵심사업(안) 발굴 및 논의

기존계획평가

- 제주헬스케어타운
- 쇼핑아울렛 개발
-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 중문관광단지 확충
-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 데이터센터
-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전문가 자문단 & 유관기관

- 친환경 신교통수단(수소전기트램)도입
- 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성
- 제주형 2차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 산단)
- 폐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순환 사업
- 수소에너지생산 및 주유산업 전환 사업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 관광벤처타운(VR, AR체험) 사업
- 말산업 특구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 초연결사회 전략연구 센터
- 청년 스타트업 장(場)
-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사업(향기사업)
- 제주형 제조업 & 스마트 팩토리
- 영어교육 특구화
- 아트페어 사업

연구진 아이디어

- 디지털 노마드 유입을 위한 유휴공간 재생
-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 복합 사업
- 제주식품산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 푸드 아일랜드 조성 사업
- 제주형 그린수소밸리(산업단지) 조성 사업
-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 국제수준 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
- 제주국제음악당 조성사업
-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사업
- 산림슬로프단지 조성사업
- 분산형 에너지 시범사업
-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드론사업



2 핵심사업(안)

전략별 핵심사업(안) (총 47개)

• (전략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구분	사업명	해당전략부문
1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2,6
2	공공임대주택 확대	3,8
3	쇼핑아울렛	5,6
4	도민공존형 제주 청정트램 사업	2
5	중산간도로 순환	2,5
6	Smart City 조성사업	2,6
7	전전화 주택 사업	2,6

• (전략2)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구분	사업명	해당전략부문
1	스마트 환승 허브사업	1,3
2	5G 기반 제주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사업	3,6

• (전략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구분	사업명	해당전략부문
1	제주헬스케어타운	1,2,5
2	용암해수 치유센터 조성사업	5
3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사업	5
4	영어교육도시	1,6
5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1,6

• (전략4)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관리 및 매력적인 경관창출

구분	사업명	해당전략부문
1	자원순환 이노베이션 단지	1,2,6
2	폐베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순환 사업	6
3	제주자신관리신탁공사	5
4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1
5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사업	1
6	산림슬로프단지 조성사업	1

• (전략5) 제주 산업기반의 혁신

구분	사업명	해당전략부문
1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6
2	관광벤처타운(VR, AR체험) 사업	6
3	중문관광단지 확충	6
4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칭)서프파크(Surf Park) 조성	1,6,7
5	푸드 아일랜드 조성 사업	6
6	농지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6

• (전략6) 미래산업 혁신역량 제고

구분	사업명	해당전략부문
1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5
2	전기자동차특구조성	2,5
3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 사업	4,5
4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사업	1,2,5
5	제주형 제조업 & 스마트 팩토리	2,5
6	제주형 그린수소밸리(산업단지) 조성 사업	4
7	전력저장장치(ESS) 구축사업	2,4
8	해양자원산업화 클러스터	4
9	제주형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사업	5
10	카본프리 통합관제센터 설치	4,7
11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2,4
12	분산형 에너지 시범 사업	2,4
13	제주테크노밸리조성	2,5
14	디지털 노마드 유입을 위한 유휴공간 재생사업	2,8
15	제주식품산업창업지원센터(가칭) 조성사업	5
16	데이터센터 건립	2
17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조성	2,4,5
18	초연결사회 전략연구 센터	2,8
19	해양염분차발전, 파력발발전	4

• (전략7) 국제교류 증진과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반 확충

구분	사업명	해당전략부문
1	국제수준 미술관/음악당 유치 사업	1,5,8
2	아트페어 사업	5,6

• (전략8)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53

VI 집행 및 관리



0 집행 및 관리

◆ 역할분담 방안

- 핵심사업 추진체계 제시
- 도와 JDC의 역할체계 명확화
- 도청내 부서와 산하기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의 구체적인 계획집행 가이드라인 제시

※ 10년내 달성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시범사업 등)을 제시

◆ 재원조달 방안

-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후, 사업 특성과 수단별 효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고려한 맞춤형 수단 선택
  - 중앙정부 투자재원: 국가보조금, 균특회계 자금 지원, 중앙부처 재정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 지방재원: 지방세 수입, 지방채발행, 산하공기업 채권 등
  - 민간: 민자사업 투자 유치, 연기금 외 국내외 금융기관 PF와 펀드
- 재원 부담원칙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수단 적정성 검토와 재정건전성 관리 병행

◆ 제도개선 사항

- 계획과정에서 핵심사업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
- 제도개선 사항은 특별법 개정, 조례 제·개정 등으로 분류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주제발표2]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마을) 제주

이 해 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 상상>
발표문 2021. 4.14(수) 14:00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마을) 제주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01. 여성친화도시 기원 및 국·내외 사례

02. 제주지역 여성·가족 여건 현황

03. 제주 도시(마을)여건 개선 방향



문제 제기 1

누구나 안전한 도시(마을)인가

-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생활 속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해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발전되었음.
-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에 대한 요구를 시작으로,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을 통해 본격적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음(박태원·천현숙, 2012; 홍선영, 2015; 김혜정, 2017).

참고: 여성친화도시 애니메이션 https://www.youtube.com/watch?v=cY1TDlqZplg

1.
여성친화도시 기원 및 국·내외 사례

문제 제기 2

누구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마을)인가

- 도시라는 공간 내에서 여성의 주체적 의미 조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이 여성친화적인 접근과 탐색으로 기본 바탕을 이룸(여성가족부, 200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 여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를 의미

한국은 2009년 익산시를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 논의 본격화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상황과 요소를 인식하여 도시 공간을 기획

도시 공간에 거주하는 누구나,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이나 차별적 제약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도시 공간과 젠더 관점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무장애공간설계
(Barrier Free)



범죄예방설계
(CPTED)

도시 생활공간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성 평등한 노동환경과 의사결정구조,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문화 확산, 성 평등 정책 기반 등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 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여성가족부, 2019)

비전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가치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	
목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추진과제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조성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역량 강화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모든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자료 :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안(여성가족부)

국내사례

영역	지자체	공적 요약
일자리	대구 수성구	▪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성과관리 및 구정평가 지표에 '여성친화도시 협력도' 반영,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46.7%)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로즈서포터즈단' 구성・운영(2013년~, 성평등・안전도시・도시환경・사회참여 4개 분과 구성), 서포터즈단 대상 정책발굴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2019년) 등 시민 역량 강화 노력 ▪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및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 골목길 환경 개선, 마을대학 및 주민워크숍 추진을 통한 여성친화적 마을공동체 조성 노력 ▪ 여성 일자리 전담 기관 수성여성클럽 개관 및 수성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2013년~)
안전	경기 부천시	▪ 제2차 성평등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018~2022), 여성친화사업 성과 평가(BSC) 가점 반영(2017년~),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개정(협의체 위원 25→30명 확대),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16년 33.6% →' 18년 39.0%)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구성, 젠더거버넌스 '부천에 꿈' 구성(2018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시민 참여 확대 노력 ▪ 안전 환경 조성 성인지 모니터링(2015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추진(2017년~) 등 여성이 안전한 공간 조성 ▪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및 창업보육공간 조성(2016년), 여성 취업 박람회 개최, '엄마손프로젝트-가사지원서비스(2015년)'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안전	서울 서대문구	▪ 성평등 기금 조성(2011~2019년, 56개 사업) 및 사업 운영,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13년 39.1% →' 18년 44.7%)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숙박업소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민관경 합동 점검, 안심귀가 파수꾼 운영, 전국 최초 마을버스 안심귀가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축 등 여성이 안전한 공간 조성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서포터즈 구성・운영, 여성친화테마길 '여기로' 조성・운영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민 참여 강화 및 의식 확산

자료 : 여성가족부(2019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상 지자체 특화사업

여성친화 일자리 지원

수성여성클럽 사업

사회적경제 지원	생활형 일자리 지원	여성친화 복지
• 협동조합 지원사업	• 일자리 통합지원	• 주민조직화 교육
• 소셜마켓협의회 구축	• 여성취업포털 '수다잡'	• 미즈잡 카페 운영
• 공동체 및 창업지원	• 홍보 및 주민의견수렴	• 일자리통합지원교육
		• 예비부모 아카데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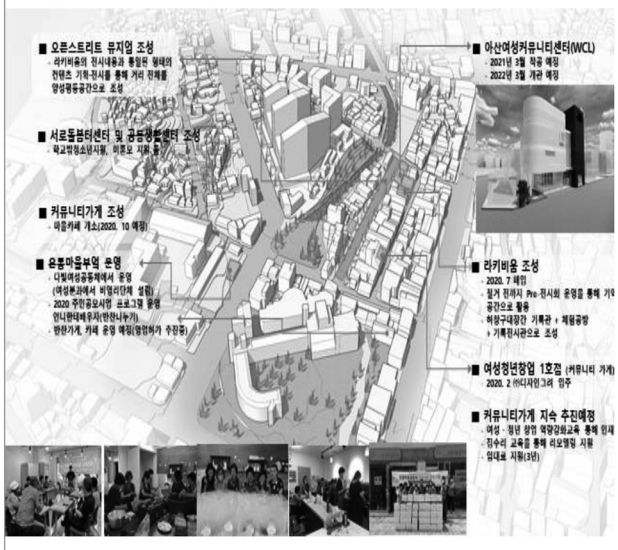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2016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



자료 : 박종일 기자(2020.7.6.).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이해응 외 (2020).『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p28

여성친화 도시재생사업



자료 : 윤금이(2020). "아산 원도심여성친화도시재생사업 사례 발표". 이해응 외 (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p29

여성친화형도시재생1호: 아산시원도심도시재생뉴딜사업

- 2015년 민관 합동 TF팀 구성, 3년 간 협의를 통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가장 고려하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으로 사업 방향 설정
- 2017년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지원 조례 입법 예고, 2017년 3월 6일 제정 공포. 전국 최초로 한시적 조례가 아닌 조례 제정.
- 2018년 아산시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2018년 6월 전국 최초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됨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참여로 여성친화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여성친화 관점 반영
- 주민협의체 남녀 공동대표로 구성, 여성분과 별도 운영하여 각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이끌어가도록 운영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여성친화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각 사업의 방향이 여성친화적 관점 반영하도록 점검하면서 진행중
- 프로젝트 구성
  1. 성매매여성의 삶을 기억하는 기억의 공간 라키비움 조성
  2. 학교 밖 여성청소년 지원, 미혼모 지원 등 서로돌봄센터 및 공동생활센터 조성
  3.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WCL 창업 공간 조성
  4. 양성평등 콘텐츠 기획 전시를 통한 오픈스트리트 뮤지엄 조성
  5. 마을부엌 운영, 커뮤니티 가게 조성 및 지속 추진 등

여성친화 거점 공간

구 분	면 적(㎡)	시 설 현 황
계	2,666.77	
지하 1층	492	주차장, 기계실
지상 1층	813.17	상담실, 사무실, 일시보육시설, 아이♡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지상 2층	820.70	다목적강당, 강의실, 예체능강의실, 족욕실
지상 3층	540.9	건강도서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힐링카페

여성문화공간-休 전경



※ 위탁운영 제외 : [시 보육아동과] 아이♡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시설, [시 장애인복지과] 힐링카페

박재규(2018). "여성의 건강과 휴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018 제2차 네트워크 공동포럼 자료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6.22. 이해응 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p29

여성친화적 거점 공간 조성 사업 - 수원 휴(休)센터

- 2010년 민선 5기 시민 약속사업으로 채택하여 여성건강증진센터 설치 준비
- 2012년 여성건강증진센터 연구용역을 통해 2013년 11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2014년 5월 2일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를 개관

- 프로그램 : 휴식과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족욕과 체력단련실 운영을 통한 생활 활력 강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집단 상담 운영, 수원여성의 자율적인 동아리 사업 및 공간 지원

-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건강·문화·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여성의 건강 역량 증진에 관심 있는 교육 참여자를 지역사회 여성 건강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31개 여성 건강 문화 여성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음

여성친화 공동체(마을 만들기)

제주 성평등마을규약 표준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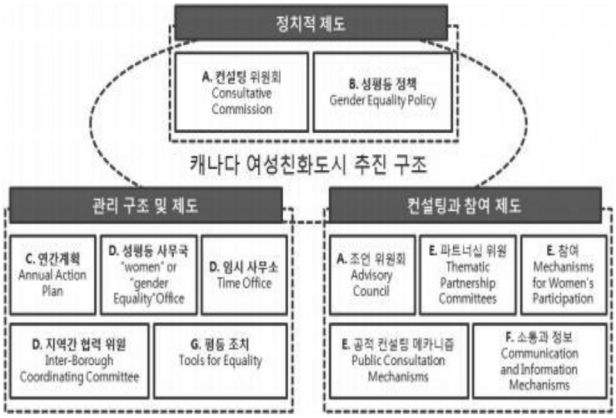
'목적' 조항	'주민권리' 조항	'주민의무' 조항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조항	'마을임원 조직' 조항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운영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	마을 여성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확보하도록 참여권·발언권 보장 명시	관습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배려·존중 의무, 여성 등 마을 내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추가	마을 여성들의 의사 반영 현실화를 위해 1세대 1표 대신 1인 1표 기본 설정	특히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여성참여율 증대

자료: 여성대표성-제주여성이 말하다!만들다!이루다! <2019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자료집>. 이해응 외(2020). p300

제주 도 성평등 마을조성 사업

- 2017년 제주여민회가 사업단을 만들어 마을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성평등마을 규약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3년에 걸쳐 진행한 사업
- 2017년 '제주여성이 모여 말하다 ' 라는 주제로 100인 원탁회의에서 제주의 성평등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과제 도출
- 2018년 '여성친화서포터즈 마을로 들어가 ' 라는 주제로 15명의 여성친화 서포트즈단이 애월읍과 조천읍 20개 마을부녀회장, 사무장 36명을 인터뷰하고 마을 속 여성 대표성 현장 조사를 실시함.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으로 6가지 정책 중 4개의 정책을 2019년 성평등마을규약 표준 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의 중점과제로 선정함.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 조항 마련
- 2019년부터 시범마을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녀회 마을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 마을규약을 성평등 마을규약으로 바꿔내기 위한 부녀회 안을 만들어내어 규약과 마을 운영에 대한 주체 의식 고양. 2020년 기준 3개 마을 채택.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지속 추진

캐나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구조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 이해응 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p300

❍ 1990년대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이 탄생

❍ 밤길 안전 캠페인은 해가 거듭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요구로 확대되었음. 캐나다 연방정부는 A City Tailored to Woman(2004)에서 성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주정부 역할을 "여성들이 사회에서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여성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으로서 여성친화도시는 정치, 행정 조직,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조로 <그림>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캐나다 여성친화도시 지표 구성 (The 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and the City of Montreal, 2004).

❍ 정치 영역 12개 지표 : 여성의 기본권, 성평등을 보장하는 국가법의 유무, 자치단체 정당 및 지자체 여성의 쿼터제를 규정한 국가법의 유무, 지방자치정당의 할당제, 각종 위원회 및 공기업의 여성비율, 여성의원 네트워크, 의회에서의 성 평등 정책 등

❍ 행정 조직 8개의 지표 : 인력 및 예산을 적정하게 갖춘 성 주류화 전담 행정부서 및 여성부/성평등부 설치 여부, 연도별로 성 평등 행동계획 수립과 추진 여부, 공무원 대상 남녀 모두 성 주류화 훈련 시행 여부, 도시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서 성별 분리 등

❍ 사회참여 및 협력 관계 관련 9개 지표 : 성평등 정책 시행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나 유관기구 설치 여부, 대중의 의견을 분야별로 청취할 수 있는 의회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 마을 단위에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자문절차가 있는지 여부 등

독일 도시개발의 성 주류화 정책

❍ 독일의 경우 뮌헨, 하노버 등지에서 지역 및 도시개발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음. 독일은 연방건축법 제1장(일반도시건축법) 제1부(건축지도계획) 제1조 건축지도계획의 과제, 개념, 원칙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3.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 특히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욕구,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 및 교육체제와 스포츠, 여가, 휴식의 중요성"을 삽입(2007년 2월부터 효력)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공간정책의 성 주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1998년 뮌헨시의회에서 결의한 도시발전구상 (PERSPEKTIVEMÜNCHEN)은 지속성과 도시성의 원칙에 기초, 뮌헨 토지 관리 기구는 '사회적으로 공평한 토지이용 절차원칙'을 통해서 근거리교통계획(NVP)과 직주근접형 이동경로에 대한 계획 수립
- 근거리 교통계획은 뮌헨시민의 이동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 설문조사 결과 자동차 면허증 소유 비율은 남녀가 비슷해졌고, 여성의 자가용 이용이 과거보다 늘어났으나 여성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여전히 남성보다 적으며, 여성은 장보기와 보호 동반 일을 더 많이 맡고 있어 남성보다 동선 연결이 더 복잡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성별차이를 고려한 교통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매력적이고 안전한 길을 조성하고, 시범 프로젝트 2 지구에서 '근거리 이동 시 구역 구상' 이용자에게 공정한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근거리교통 계획의 질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정류소 통로, 넓은 대기 장소, 악천후 대피소, 휠체어와 유모차에 적합한 정류소, 장애물 없는 차량 통로, 전차 시간표와 노선도 정보, 높이 등에서 장애물 제거 등을 추진하였음.
- 직주근접형 이동경로에 대한 계획에는 새로 건축된 시 구역에 처음부터 공공녹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주지 인근에 세울 것,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인근 생활편의시설 센터로 가는 길이 짧고 안전하며, 대중교통과 잘 연결 되어 있고 일자리와 이용이 잘 혼합될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해응 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p32-33

독일의 여성친화적 돌봄 공간 조성 사업- 마더센터

❍ 여성풀뿌리운동의 결과로 시작된 독일 마더센터는 1980년대에 시작하여 초기에 가족부로부터 3개의 모델센터가 지원을 받았으며, 여성들의 사례 발굴 후 전 세계로 확대되어 현재 유럽, 아프리카, 북미 등 22개국에 1,000개 이상의 독일형 마더센터가 생겨남.

- 공공의 거실(Public living room)로 불리는 마더센터의 특징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공하는 시스템임. 1986년에 창립된 슈투트가르트 마더센터는 부모-자녀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아동긴급보호소, 재활용가게, 카페, 식당, 작은 도서관, 스포츠, 댄스실, 공작실 등이 있음.

- 마더센터는 지역의 여성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역량강화에도 기여를 함. 지역의 여성들은 마더센터를 통해 여성, 돌봄, 가족 등의 이슈에 대한 옹호 활동을 펼치며 의회와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훈련된 여성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옴.

- 독일 마더센터의 의미와 성과는 마을의 연결망의 역할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형태의 가족들에게 개방적이고,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지역사회 돌봄 문화를 조성함.

이해응 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p33-34

그림 2. 마더센터 운영 철학



자료 : 최정은(2015). "이슈진단 124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2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2015/09/11/17502/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시계획의 성 주류화 정책

❍ 비엔나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행정기구로 시 여성담당 행정국(Executive City Councillor for Women's Issues)과 여성국이 있으며, 5명의 동등기회 자문관과 180명의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음. 조직, 안전, 안보 담당 행정국(Chief Executive Office Executive Group for Organization, Safety and Security) 안에 성 주류화 프로젝트 매니저를 두고 있음.

❍ 1998년에는 비엔나 도시계획국에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Vienna Co-ordination Office for Planning and Construction Geared to the Requirements of Daily Life and the Specific Needs of Women)'를 설치

❍ 2003년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는 비엔 교통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공공 공간과 교통안전' 실무단을 관할하였음. 이 실무단은 교통 마스터플랜이 공공 공간에서 기회의 평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보행자 교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한 원칙과 목표, 질적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교통 마스터플랜은 주변 교통, 공공 공간에서의 안전, 가사노동과 집안일 해결 및 아이들, 청소년, 노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게 되었음.

❍ 2002년 비엔나 시는 성 주류화 시범지구로 마리아힐프를 지정하였는데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가 그 과정을 지도하고 7개의 부서가 참여하였음.

주 내용	구체적인 내용
경제 활동 증진	- 연령에 따른 직업 교육 실시 10대: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멘토 지정 20대: 취업정보 및 강좌(외국어, 학원수강 등) 수강 기회 지원, 자격증 취득 교육프로그램 진행,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30대-50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60대 이상: 여성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한 재활. 교육 센터 지정 이주여성을 위한 언어 교육 및 취업 훈련 제공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지원 비혼, 한부모 여성, 여성 노인 등을 위한 공공 일자리 발굴 - 사회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 돌봄 노동 종사자(보육, 노인돌봄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돌봄 노동 종사자의 노동강도에 맞는 경제적 대우 확보
고용 평등 및 안정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 청소년/청소녀의 아르바이트 현황 조사 및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 확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장애여성, 이주여성 고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장애여성, 이주여성, 한부모 여성 등의 고용 비율 제시 및 달성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안정적 노동환경 제공 남성 중심적 노동환경 개선(여성 휴게실, 화장실 등 마련)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체인력 뱅크 마련
일·가정 양립	- 여성 및 남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의 확산 및 정착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제공,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이해응 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p34-35

스웨덴의 성 주류화 정책 및 육아휴직제도

❍ 스웨덴 정부는 2018년 1월 새로운 양성평등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양성평등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 특히 성매매와 인신매매문제, 성 주류화 문제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스웨덴 사회를 구성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기회와 권한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스웨덴 정부는 이 목표를 바탕으로 양성 간 균등한 힘과 권한 부여, 경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가사노동과 보육에서의 양성평등,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금지 등의 네 가지 하위 목표를 두고 있음.

* 특징 : 첫째, 성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식,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남성이 경험하는 불평등 포함. 둘째,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데 있어 동일한 권력을 가지는 것".

❍ 스웨덴의 **고용평등 정책의 일환인 육아휴직제도**

- 스웨덴은 1974년에 양성 육아휴직 제도로 교체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1974년 당시 유급 휴직기간은 180일이었으며, 1990년에 450일, 2002년 480일로 늘어남. 모든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약 80%의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즉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다고 함. 2004년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0일 중 9.7일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이 사용함을 알 수 있음.

이해응 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p35-36

제주지역 여성친화도시 여건 실태조사(2020)

조사 개요 및 일반사항

대상 : 제주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1045명
기간 : 2020년 8월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0%
내용 : 여성친화도시 인식, 일자리·안전·가족친화·지역활동·제도 기반 여건 및 정책 수요 등
성별 : 여성 50.7%, 남성 49.3%
연령: 20대 18.6%, 30대 14.6%, 40대 21.1%, 50대 20.5%, 60세 이상 25.2%
거주지역: 제주시 동 57.5%, 제주시 읍면 16.8%, 서귀포시 동 16.8%, 서귀포시 읍면 12.0%
출생지역: 제주 출생 84.5%, 제주 외 지역 출생 15.5%
장애인: 장애인 10.7%, 비장애인 89.3%
혼인상태: 유배우자 62.1%, 기혼 무배우자 10.7%, 미혼·동거 27.2%
가구형태: 1인가구 15.2%, 부부가구 17.5%, 부부와 자녀 가구 56.2%, 3세대가구 4.5%, 한부모가구 4.3%, 조손가구 등 2.3%

지역 및 여성친화도시 인식

72.0% 제주는 타 지역보다 살기 좋은 지역
66.8%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타 지역보다 좋은 지역
45.2% 현재 지역이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지역

37.3% 예전부터 살아봐서
16.2% 직장, 학교가 가까워서
14.3% 주거환경이 양호해서

1.44점(5점척도)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1.4% 꼭 참여, 48.5% 기회가 되면 참여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자료 : 이해응 외(2020)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4장 데이터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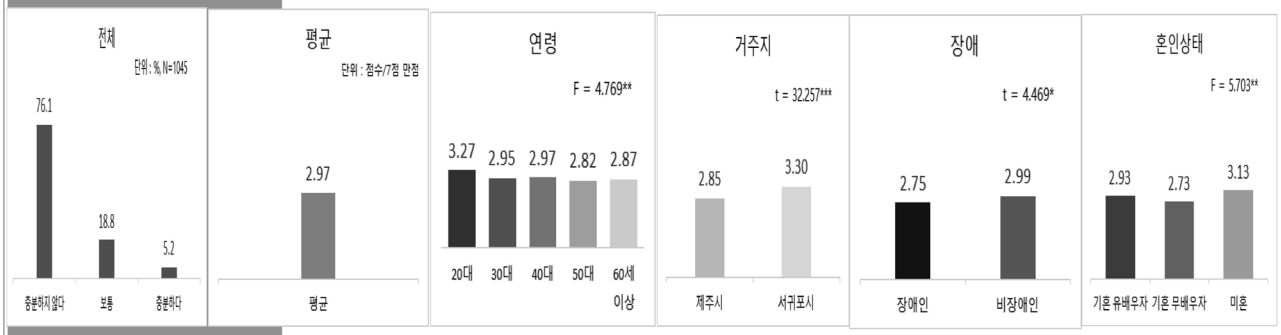
2. 제주 여성·가족 여건 현황

:

일자리 여건

일자리 여건 세부 문항		평균 (7점 척도)	
1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충분	3.32	점수가 높을수록 여건이 좋음
2	사회적 약자 일자리 충분	2.89	
3	여성들이 직접 창업한 사업체, 조합 많다.	2.88	
4	창업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업교육과 컨설팅이 충분히 제공	2.85	
5	취업지원서비스(취업정보,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가 충분히 제공	2.88	
6	내가 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충분	2.97	
전 체		2.97	

- 취·창업 지원 여건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일자리 여건은 보통 수준 훨씬 이하
- 50대가 가장 일자리 어려움 호소
-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더 열악
-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어려움
- 기혼무배우자가 더 어려움 호소



일자리 여건 개선 사항 1순위

❍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일자리 우선 개선 사항' 1순위는 충분한 일자리(25.2%), 질 좋은 일자리(18.5%), 사회적 약자 일자리(18.0%), 창업지원(16.4%), 취업지원(16.0%), 여성 창업(6.0%)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 자체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고, 그 다음 질 좋은 일자리, 사회적 약자 일자리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개선사항에 대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충분한 일자리', 40대(24.0%)는 취업지원, 장애인(33.0%)은 '사회적 약자 일자리', 비장애인(25.6%)은 '충분한 일자리', 비혼자(30.3%)와 기혼유배우자(22.7%)는 '충분한 일자리', 기혼무배우자는 '충분한 일자리(26.8%)'와 '사회적 약자 일자리(26.8%)'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 장애, 혼인 상태 고려 과제 발굴 필요.**

*자료 : 이해응 외(2020).『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p207-208

경제활동 분야 제주 성평등 수준과 순위 (100점 완전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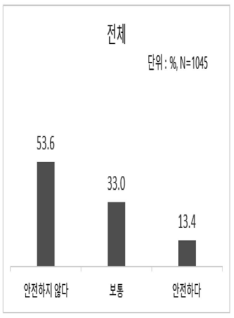
등급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74.1	2	75.2	2	76.5	1	77.6	1	78.1	1	79.8	1
경제활동참가율	82.0	1	83.4	1	85.3	1	87.3	1	84.3	1	86.0	1
성별임금격차	63.7	1	63.9	1	62.2	4	63.0	4	69.5	1	67.4	1
상용근로자비율성비	76.7	8	78.2	8	82.1	3	82.6	4	80.6	9	86.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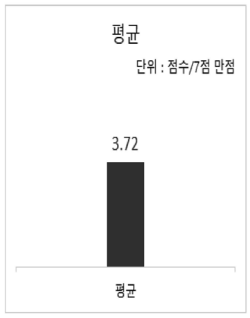
자료 : 주재선 외(2015~2020). 연도별『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보고서 참조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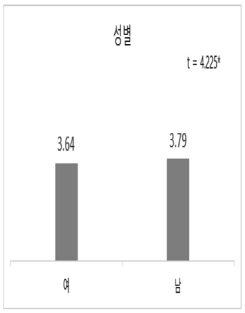
안전 여건

안전 여건 세부 문항		평균 (7점 척도)	
1	마을단위의 자율방범대(치안유지 및 차량통제, 주민안전 등)	3.92	점수가 높을수록 여건이 좋음
2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서비스나 장치(귀가도우미, 안전택시, CCTV, 가로등, 조명, 무인택배함, 위급사항 비상벨 등)	3.83	
3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행	3.89	
4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동네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3.94	
5	우리지역은 무장애 보행 환경이 잘 조성	3.44	
6	공공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 이용이 편리	3.28	
전 체		3.72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 공공상담소 이용 및 무장애 보행 여건 가장 열악
- 53.6%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함
- 안전 전반적인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 이하로 느끼고 있음
-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안전 여건이 취약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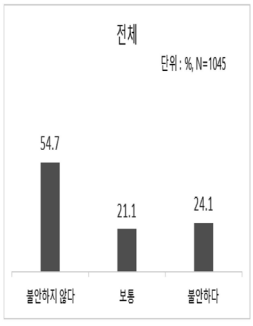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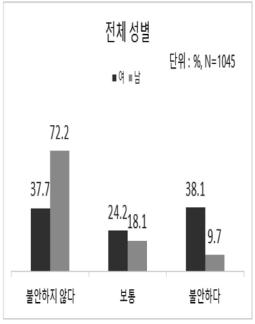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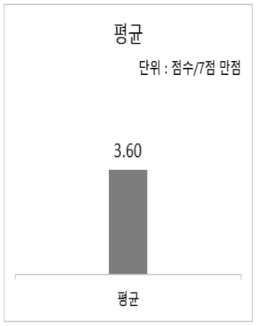
불안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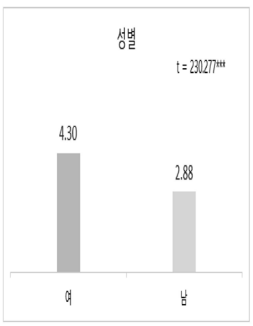
불안 정도 세부 문항		평균 (7점 척도)	
1	집에 혼자 있을 때 우편배달부, 택배기사, 배달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할 때 불안	3.14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
2	강도나 성폭행 등을 당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3.38	
3	가로수, 간판 등 시설물로 가려진 공간이나 공터를 지나갈 때 불안하다	3.41	
4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불안하다	3.80	
5	새벽에 올레길, 오름 등을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	3.80	
6	가로등 조명이 어두워서 야간에 혼자 걸어 다닐 때 불안하다	3.73	
7	어두운 지하주차장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하다	3.83	
8	야간에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가는 것이 불안하다	3.70	
전 체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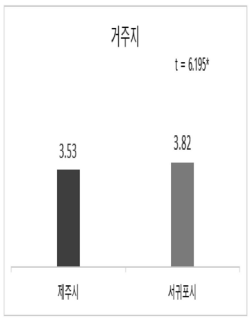
- 인차도 분리되지 않은 길, 새벽 혼자 올레길 오름길 가장 불안
- 전체 불안감은 보통 수준 이하이나 여성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 여성(38.1%)이 남성(9.7%)에 비해 불안감을 훨씬 높게 느낌
- 제주시(3.53점)가 서귀포시(3.82점)에 비해 더 불안감을 높게 느낌











안전 여건 개선 사항 1순위

○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안전 여건 우선 개선 사항' 1순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비스 및 장치(32.7%), 자율방범대(20.1%), 무장애 보행 환경(16.6%), 사회적 약자 안전(13.9%), 성폭력 상담 등 공공상담소(10.5%), 이웃 관계(6.2%) 순으로 나타나, 안전 인프라 개선과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임.

-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1순위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비스 및 장치 개선, 2순위 자율방범대 활성화 이지만, 3순위로 제주시는 무장애 보행 환경(17.2%), 서귀포시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안전(20.1%)임. 성폭력 상담소 이용은 제주시(11.7%)가 서귀포시(7.1%)에 비해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순위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비스 및 장치 개선이지만, 2순위 3순위로 장애인은 무장애 보행 환경(24.1%), 사회적 약자 안전 여건(22.3%), 비장애인은 자율방범대(21.0%), 무장애 보행 환경(15.6%)로 나타남. 성폭력 상담소 이용은 비장애인(10.9%)이 장애인(7.1%)보다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전 분야 제주 성평등 수준과 순위 (100점 완전 평등, 주재선 외(2015~2020))

등급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안전	60.4	16	65.3	15	64.7	15	68.4	12	69.8	12	71.1	15
전반적인사회안저에대한인식성비	56.3	14	60.1	12	64.1	10	67.6	8	69.7	8	78.3	3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비율격차	64.5	16	70.5	15	65.3	15	69.3	14	70.0	14	63.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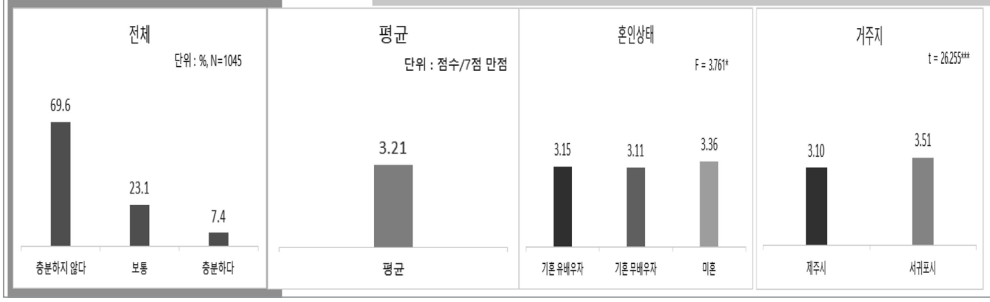
이동 여건 우선 개선 사항

영역	우선 개선 사항 1-3순위
이동 여건	1. 도보 환경 개선 -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자동차 -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 - 사람이 걸어 다니기 좁은 인도 폭 2. 대중교통 개선 - 버스노선 소요시간 등 불편함(직행보다는 지역 순환 완행이 많음) - 길 막힘 등 목적지까지의 거리(목적지는 집 또는 직장, 학교, 학원 등 포함) - 버스 등 대중교통의 너무 긴 배차시간 3. 승용차 이용 개선 -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협소해진 주택가 골목길 운전 - 주차공간의 부족 - 등하교시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 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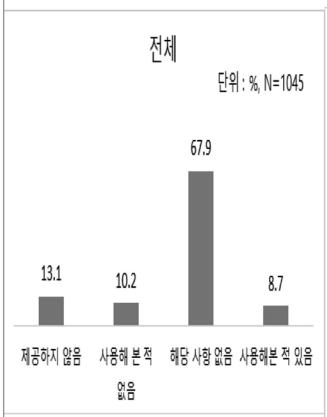
가족친화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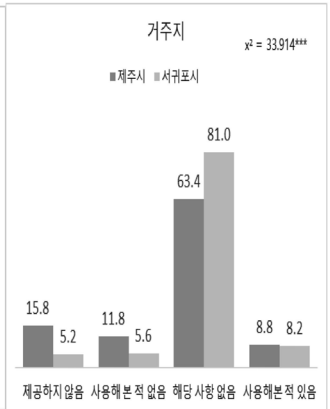
	가족친화 여건 세부 문항	평균 (7점 척도)	
1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	3.35	점수가 높을수록 여건이 좋음
2	공공시설 내 수유시설 및 유아 돌봄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	3.14	
3	마을 단위의 돌봄 환경(돌봄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잘 조성	3.11	
4	여성 전용·가족(배려) 주차장, 저상버스 운행, 자전거 도로 활성화 등 여성과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통 환경이다.	3.21	
5	여성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시설(문화·예술·체육·놀이터·도서관 등)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3.27	
6	지역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아카데미), 학습모임(건강, 문화, 양육 등)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3.27	
	전 체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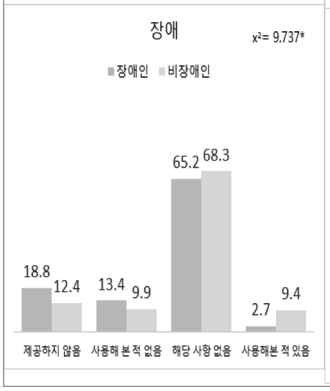
- 공공시설 내 수유시설 및 돌봄 공간, 마을단위 돌봄환경 여건 가장 열악
- 69.6%가 가족친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 가족친화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 이하로 느끼고 있음
- 기혼무배우자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
- 제주시(3.10점)가 서귀포시(3.51점)에 비해 가족친화 여건이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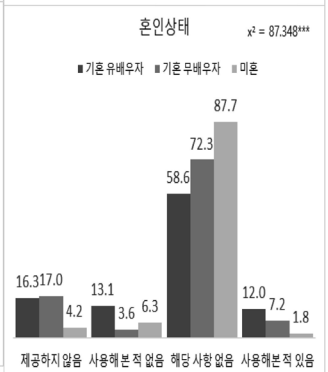


일·가정 균형 제도 이용 현황









일·가정 균형 제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시차출근제, 직장어린이집 등

- 일·가정균형제도 제공 안함 13.1%, 사용해본 적 있음 8.7%로 이용 저조
-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일 · 가정균형제도 제공 안함, 사용해본 적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일 · 가정양립제도 제공 안함, 사용해본 적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혼자의 일 · 가정양립제도 제공 안함, 기혼유배우자 사용해본 적 없음 비율이 높게 나타남

YOUR NAME HERE

가족친화 여건 개선 사항 1순위

○ 가족친화 여건 중 우선 개선 사항 1순위는 "여가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24.4%),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돌봄 시설"(23.2%), "편리한 교통 환경"(21.0%), "마을단위의 돌봄 환경"(12.7%)," 공공시설 내 수유시설 및 유아 돌봄 공간"(11.0%)," 리더십 프로그램 및 학습모임"(7.8%) 순으로, '여가문화', '돌봄시설', '교통환경' 순으로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27.9%)은 여가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가장 1순위로, 남성(25.4%)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돌봄시설을 가장 1순위로 응답하여 여성은 여가문화, 남성은 사회적 약자 돌봄시설 개선 사항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별로 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가문화 시설과 사회적 약자 돌봄시설, 리더십 프로그램 및 학습 모임을 더 요구하고 있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비해 공공시설 내 수유시설 및 유아 돌봄 공간, 마을단위의 돌봄 환경, 편리한 교통 환경을 더 요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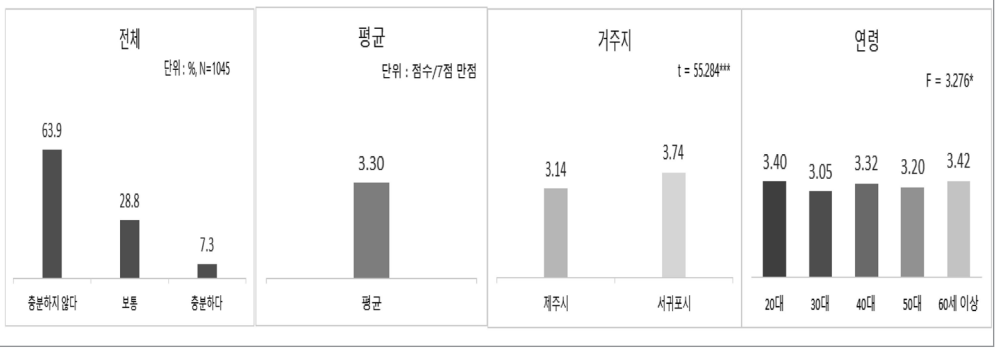
가족 분야 제주 성평등 수준과 순위 (100점 완전 평등, 주재선 외(2015~2020))

등급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족	56.3	7	57.1	5	57.4	10	57.9	12	62.7	4	68.5	1
가사노동시간성비	30.6	1	31.8	1	33.1	1	34.3	2	35.7	3	48.1	1
가족관계만족도성비	93.3	10	96.9	4	100.0	1	98.8	1	97.3	3	94.4	6
셋째아이상출생성비	96.8	11	91.1	16	87.7	16	86.7	16	95.5	12	1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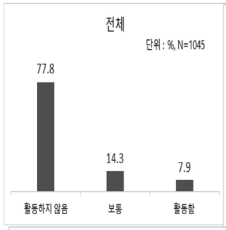
지역참여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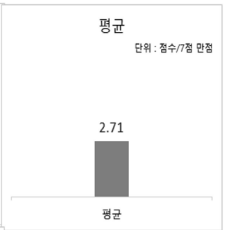
	지역 참여 여건 세부 문항	평균 (7점 척도)	
1	주민중심의 다양한 공동체, 마을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3.60	점수가 높을수록 여건이 좋음
2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3.24	
3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행사가 열리고 있다	3.31	
4	동네 중요한 결정에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3.27	
5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쉽게 참여하도록 활동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3.17	
6	여성들의 지역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3.19	
	전 체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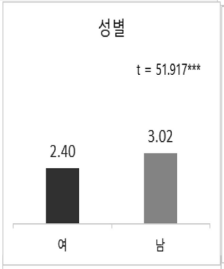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건 가장 열악
- 63.9%가 여성의 지역 참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 여성의 지역 참여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 이하로 느끼고 있음
- 제주시(3.14점)가 서귀포시(3.74점)에 비해 지역 참여 여건이 열악
- 30대가 가장 여성이 지역 참여 여건이 열악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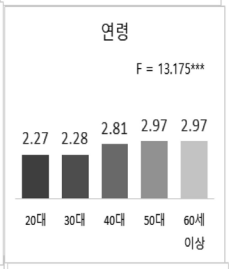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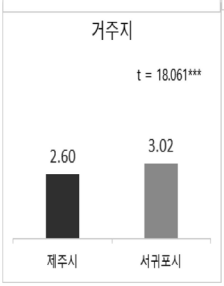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지역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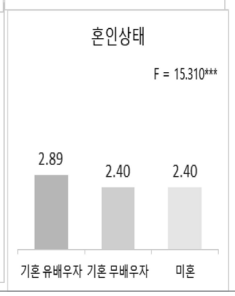












지난 1년동안 지역 참여 경험 세부 문항		평균 (7점 척도)	
1	향우회, 동창회 등 지역 내 친목 모임	3.66	점수가 높을수록 여건이 좋음
2	취미.여가 관련 동호회(등산, 오름, 스포츠 등)	3.24	
3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	2.60	
4	지역 내 주민모임(청년회, 부녀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	2.40	
5	지역 내 마을 공동체 활동 모임(마을 만들기 관련 모임 등)	2.22	
6	행정과 연계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등 활동	2.11	
전 체		2.71	

- 행정과 연계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공동체 활동 모임 참여 경험 저조
- 77.8%가 지난 1년 동안 지역 활동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지역 참여 경험은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역 활동 참여 경험이 낮음
- 20대, 30대의 지역 사회 참여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지역 참여 경험이 낮음
- 기혼 무배우자와 미혼자가 지역 참여 경험이 낮음

여성 지역참여 여건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여건 중 우선 개선해야 할 1순위는,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활동 정보 접근"(28.6%),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공동체 및 마을 모임"(18.6%),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18.1%), "지역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16.4%),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행사"(10.1%), "지역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8.2%)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주민 주도 마을모임', '여성 주도 활동 공간' 순으로 가장 우선 개선 사항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남 모두 사회적 약자의 지역활동 정보 접근성 문제를 가장 우선 개선 사항으로 응답하였지만, 그 다음 순으로 여성은 '여성 주도 활동 공간'을, 남성은 '주민 주도 마을 모임'을 우선 개선 사항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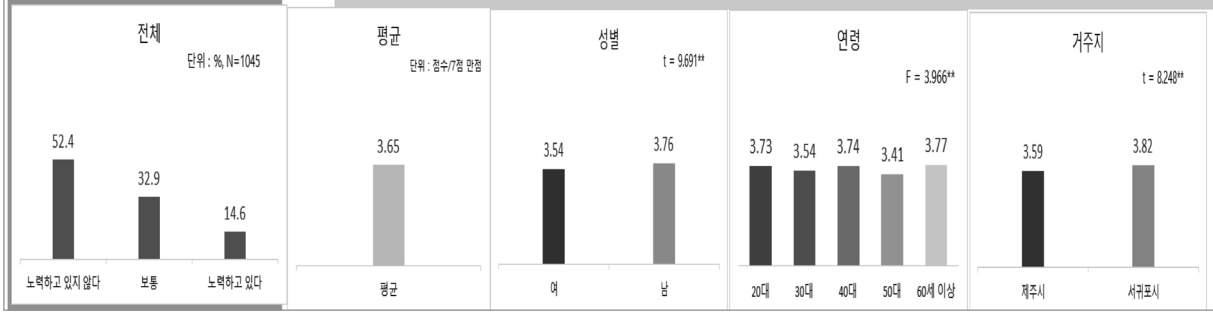
의사결정 분야 제주 성평등 수준과 순위 (100점 완전 평등, 주재선 외(2015~2020))

등급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의사결정	22.0	6	20.1	10	21.5	8	40.5	3	39.6	6	37.2	10
광역및기초의원비율성비	23.4	8	23.5	8	23.6	8	23.8	8	26.3	10	26.3	11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	32.4	5	33.4	3	34.1	3	35.2	3	38.5	3	42.1	5
관리자비율성비	10.3	13	3.5	16	6.7	16	39.0	1	27.7	6	12.1	15
지자체위원회위원성비	47.7	3	48.4	3	57.5	3	64.0	4	66.0	5	68.5	5

성평등 제도 기반 여건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노력 세부 문항	평균 (7점 척도)	
1	도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3.61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함
2	도 정책 실행 및 홍보 시에 사용하는 포스터 등은 성평등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3.59	
3	도 공공기관 인력은 충분한 성평등 의식 수준을 갖추고 있다.	3.63	
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71	
5	성인 대상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53	
6	도는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	3.50	
7	도는 코로나19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위기에 대응할 때 성별특성을 충분히 고려	3.87	
	전 체	3.65	

- 성인 대상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 성별영향평가 등 정책 노력이 가장 낮아
- 52.4%가 제주도가 성평등 확산을 위한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함
- 정부의 성평등 확산 노력은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부 노력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
- 50대가 정부 노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정부 노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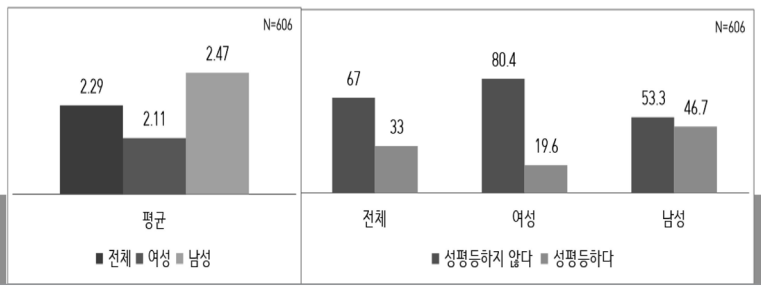
성평등 제도 기반 여건

❍ 제주도의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7개 영역의 평균값)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52.4%, 보통 32.9%, 노력하고 있다 14.6%, 7점 만점에 3.65점, 보통 수준 이하로 인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성별로 보면, 여성(3.54점)이 남성(3.76점)에 비해 더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연령별로 50대(3.41점)가 가장 부정적이고, 60세 이상(3.77점)이 가장 긍정적 거주지별로 제주시(3.59점)가 서귀포시(3.82점)보다 더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 제주도의 성평등 확산을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정책적 노력 1순위는, "정책 수립 시 여성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27.8%),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20.6%), "공공기관 인력의 성평등 의식 수준"(16.4%), "위기 대응 시 성별특성 고려"(11.8%), "성인 대상 성평등 교육"(10.9%), "정책 실행 및 홍보 시 성평등 이미지 반영"(7.5%),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정책 실행"(5.0%) 순으로 나타나,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의견 반영' 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 이 우선 노력해야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민의 제주사회의 성평등 수준 체감



여성친화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	우선 개선 사항 1-3순위
여성친화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한 일자리 제공** 2.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CCTV **설치**, **마을단위 자율방범 강화 등**) 3.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취창업정보**,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창업컨설팅 등**)

3. 제주 도시(마을)여건 개선 방향

01. 국내외 제도 변화와 연계 강화

02. 여건 별 성과목표 설정 및 추진체계 강화



1. 국내외 제도 변화 연계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성평등 과제의 연계 강화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제주의 여성 인권 보호 및 성평등 목표 설정 연계 강화
- 유리천장지수 개선을 위한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제주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 확대 방안 연계 강화

제주특별법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관련 조항 개정 안

정책분야	정책가치 및 목표	주요 조문내용	전부개정안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양성평등 국책과제 반영	17번째 항목 신설 17. 여성인권과 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제1장 제1절 156조(종합계획의 수립) 17항목 신설 p106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성별균형 실현	8.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부개정안 제1장 제1절 160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보완 p109

자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주류화인권연구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차, 2차, 3차 성평등 관련 과제 비교

구분	1차 종합계획(2006~2010)	2차 종합계획(2011~2021)	3차 중간보고 (2021.3 기준)
비전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 복지를 향상	교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 제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기본)목표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행복제주
중점과제 (발전전략)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사회공동체 부문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정책과제	생산적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여성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세부(추진)과제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	국제자유도시와 제주 여성친화 프로젝트	집필 수정 보완 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 강화

● 국제적으로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신장 명시 등, 성평등은 인권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함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년)에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신장을 명시, 성평등은 지속가능성의 주요한 척도
- 유엔 193개 회원국이 SDG를 채택하였으며, 한국도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SDG 목표 실현을 위해 성평등 실현을 100대 국책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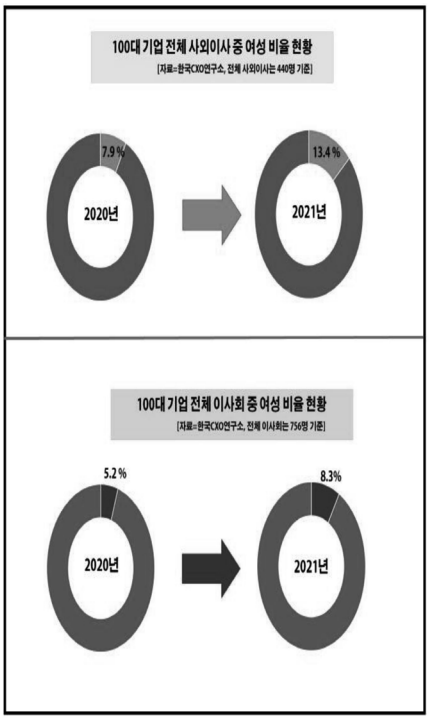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국제위상과 걸 맞는 성평등 선도 역할 기대

-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제적 성평등 수준을 기대 받고 있음
- 제주도는 2012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10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고, 3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 단계에 직면하고 있음
- 2014년 여성가족정책 전문 연구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2018년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부서 신설 등 성평등 추진 기반을 구축해 왔고 향후 10년은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음

ESG 경영 확산과 연계 강화

- ESG는 친환경(Environment)·사회적 책임경영(Social)·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 투명 경영을 뜻하는 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함.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함
- 한국은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회는 특정 성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기업의 여성 이사가 증가하고 있음. 2021년에는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13.4%로 유리천장 지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제주도는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도내 기업 특징에 따라 기업 이사회의 성별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추진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자료 : 한국CXO연구소. 이데일리(2021.3.16.). "100대 기업,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3명 중 1명 '여성'"

2. 여건 별 성과목표 설정 및 추진체계 강화

- 안전 여건 개선을 위한 성과목표
-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성과목표
- 의사결정구조 여건 개선을 위한 성과목표
- 가족친화 여건 개선을 위한 성과목표
- 성평등 제도기반 여건 개선을 위한 성과목표

* 영역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추진 필요

제주 도시(마을) 여건 개선 성과목표

비전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여건 개선	안전 여건	**노동**·의사결정 여건	가족친화 여건	**성평등 제도기반**
성과목표	성평등점수15위→상위권 여성불안감 38.1%→10% 여성 안전 보행환경 조성 여성폭력피해 지원 확대	성별임금격차 32.6%→10% 미래산업여성인력 양성 40%↑ 의사결정구조여성비율 40%↑ 간호간병인력 처우 개선	남성육아휴직이용13.7%→40% 가족친화인증기업 70개→100개 제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확충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양성평등담당관제 기본계획성별영향 성인지통계시스템 정책권고제활성화
주도·협업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경찰청,대중교통과등 협업부서	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노동정책과 미래전략국등 협업부서	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고용정책과 등 협업부서	성평등정책관, 모든실국별, 각종위원회,도민참여단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토론 및 질의 응답]
젠더가치와 문화다양성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젠더 가치와 문화다양성[1)]

토론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화다양성 가치와 젠더가치의 관계 설정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은 여성을 소외된 집단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문화적 향유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배분, 분배, 접근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층위에서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2)] 2005년 협약은 네 가지의 핵심 원칙과 목표로 구성된다. 네 가지 목표 중“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을 위하여 사회의 두 가지 분야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한 분야가 바로 ‘성평등’이다. 성평등은 젠더 가치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료: UNESCO, 2015,『글로벌 리포트: 문화정책의 재구성』(요약본, 번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 p.6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의 주요 내용>

성평등 증진을 위한 핵심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한 법제적 틀,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창조자와 생산자로서의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방안,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에 여성의 접근 기회를 증진하는

1) 류정아, 2018,『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조 재구성
2) 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p194

정책과 방안 등과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약이 다루는 성평등의 주요 내용은 여성이 문화예술의 창작, 생산, 소비의 생태계 속에서 소외받는 집단이라는 전제 하에, 여성 문화 예술인 지원 및 문화생활 향유의 증진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II. 젠더가치와 문화다양성 가치의 조화 방향: UNESCO의 협약 시행 과제를 중심으로[3]

1. 협약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

- 문화정책 또는 문화 관련 법들이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 동등한 기회보장 증진을 평가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공적인 자원들에 대한 검토
- 성평등의 육성 또는 방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국가의 문화 기관 내의 선별 기능 및 과정에 대한 평가
- 다양한 문화적 직업과 산업에 있어서 여성 및 성적 소수자들의 존재와 지위 등에 대한 연구
- 문화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실천전략들의 검토
- 문화 영역의 성평등 증진을 위해 다중 관계자들로부터의 컨설팅과 의견 청취

2.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

- 문화 정책 또는 관련법들이 성평등의 증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문화 다양성의 주요한 측면으로서의 성평등에 대한 분명한 확언과 지지를 포함하도록 수정
- 자원 분배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경우, 자원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성을 위한 수정 조치를 필수적으로 취하며, 진입 장벽을 가르는 직책에의 남녀 불평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수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특정 문화관련 직책 또는 산업에서 여성의 수가 현저히 적게 나타날 경우,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성이 선호하는 문화적 직책으로의 참여 또는 승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제거하는 조치가 만들어져야 함
- 여성이 젠더와 관련된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예술가, 음악가, 작가 등 문화관련 직업을 가진 여성 및 성적 소수자들이 성폭력, 남용, 위험, 검열 등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확고한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사수해야 함

3. 문화다양성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지원하는 계획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서도 성평등을 장려해야 함
- 디지털 환경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남녀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있어서 여성과 성적 소수자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들과 그들의 이익을 포함시켜야 함
- 예술가들과 다른 문화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에도 모든 젠더들이 그러한 기회에 대한 접근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함
- 예술가의 표현적, 예술적, 사회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들에서 젠더와 관련한 위협들을 고려해야 함
- 마지막으로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및 사업으로, 그리고 문화 관련 직업 및 산업에서의 생산적인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젠더들에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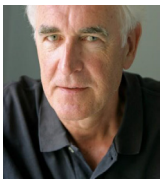
3) *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p 206-207 참조

Ⅲ.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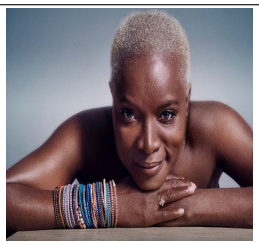
1. 프로그램 사례: 스웨덴의 FiftyFifty

스웨덴 영화 연구소(SFI) 주관으로, 2020년까지 영화산업에서의 여성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1)'노르딕 여성(Nordic Women)'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여성 영화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공개함으로써, 영화 역사에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여성 제작자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만들어 졌다.[4] 2)무비먼트 (Moviement)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여성 영화제작자들의 지도력과 직업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영화감독 및 제작자들 사이에서의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3)또한 기금 지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감시와 모니터링의 과정을 보다 강화하였다. 4) 스웨덴 필름 기관(Swedish Film Institute)은 벡델 테스트(Bechdel Test)를 스웨덴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벡델 테스트는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성차별, 특히나 여성이 적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안된 테스트로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①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최소 2명 포함할 것 ②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③ 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5] 현재 스웨덴 정부는 Goal 2020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성평등 증진 활동 전략을 발표 한 바 있다.

2. 창작자로서 젠더 가치 강조한 인물 사례

인물 정보	활동 내역	주요내용
 디야 칸 (Deeyah Khan)	– 파키스탄계 노르웨이 여성 영화감독으로 현재 창조성 및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UNESCO 굿윌 대사 – 바나즈의 사랑이야기 (BANAZ: A LOVE STORY)라는 다큐멘터리로 데뷔하여 피보디(peabody) 및 에미상 등 수상	– '바나즈의 사랑이야기'는 영국에서 발생한 명예살인의 피해자인 바나즈의 일생을 그린 영화로, 여성폭력을 집중 조명 – 디야칸은 여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외된 집단에게 발생하는 폭력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2017년 Unesco에서 여성의날을 맞아 개최한 "창조할 수 있는 용기 (Courage to create)"라는 포럼에서 "단순히 재현의 문제가 아닌 (여성)권한에 대한 문제이다. 여성은 그들의 예술적인 분야로의 진출과 성장에 있어서 항상 진입장벽을 만난다. – 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시행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결정에 있어서도 남성과 동등한 참여를 해야 한다[6]"라고 말했다.
자료: sister-hood.com/deeyah-khan/welcome-to-sister-hood		
 올 레토브(Ole Reitov)	– Freemuse(예술의 자유를 주창하고 수호하는 국제단체 1998년 설립)설립자 – "위협 받는 예술 "이라는 보고서 발간, 예술에 대한 검열 등을 검토하고, 특히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림	– 그는 창작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감지하고 알리는 '조기 문화적 경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여성 창작자들은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말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2005년 UNESCO 협약을 시행해야 한다. 이 협약이야말로 예술의 창조적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료: en.unesco.org/world-press-freedom-day-2016/ole-reitov		

4) 영화계의 노르딕 여성 홈페이지 내용 참조: http://www.nordicwomeninfilm.com/about/
5)자료: 벡델테스트 위키페디아
6)2017년 여성의날 기념 유네스코 포럼, 2017년 3월 10일. 자료:
7) Cinema and the Second Sex: Women's Filmmaking in France in the 1980s and 1990s, P.7
8)
9) "CIAM Joins Discussions on Gender Equality in the Arts at the Uruguay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at UNESCO in Paris," 2017년 3월 15일자 뉴스기사.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ic Authors (CIAM),

 재키 부에(Jackie Buet)	– 프랑스의 크레테유 국제 여성 영화제 총감독 – 1979년 프랑스 외곽지역 중 하나인 쏘(Sceaux)에서 최초로 여성 국제 영화제를 설립, 1985년에 크레테유라는 파리의 외곽지역으로 이동시킨 장본인 – 당시 부재했던 여성관련 영화가 배경이 됨	– 크레테유 여성 국제영화제는 성공적인 국제영화제로 성장 했다.[7] 그녀는 주로 영화의 재현과 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가 여성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이러한 축제를 통하여 여성이 그들의 문화적 생산을 다시금 인정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 르몽드, Regards de femmes, cinma de femmes,		
 수잔 콤보 (Suzanne Combo)	– '예술 음악가의 길드'라는 단체의 설립자	– "여성은 결정권이 부여되는 직책에서 여전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위원회 등에 참가할 때 나 자신만이 여성인 경우가 허다하다. 문화적 삶에 있어서의 여성의 관점과 기여는 이제 외곽에서 중심부로 이동될 필요가 있다."[8] – 한편 여성이 마주해야 하는 성차별주의는 이러한 직책뿐만 아니라 일상에 만연해 있다고 강조한다. "여성 창작가는 본인의 의상, 목소리, 수행에서의 성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일상적 경험이 축적되어서 불안함과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특히 남성 권력이 주류로 자리 잡은 예술 문화 분야의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9]
자료: millisboa.com.mil/mil/speaker/suzanne-combo		
 젭춤바 (Jepchumba)	– 케냐의 여성 예술가로서 2012년 아프리카의 20명의 영향력 있는 젊은 여성 중 한명으로 선정 – African Digital Art의 창시자	– 디지털 예술과 웹디자이너인 젭춤바는 로서 디지털 예술가들이 모여서 영감을 얻고 그들의 작업을 함께 전시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아프리카의 예술, 기술, 창의성의 증진을 위하여 전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그는 명실상부 아프리카의 여성 디지털 예술가를 대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소녀들이 디지털 기술 환경에 익숙해 져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자료: https://creativedisturbance.orge/people/jepchumba/		
 안젤리크키조(Angélique Kidjo)	– 아프리카의 '디바(diva)' – 2011년 영국의 가디언지가 발표한 영감을 주는 세계의 100명의 여성 중 한명 – BBC가 발표한 아프리카 대륙의 50명의 유명인사 – 2016년 국제 앰네스티 대사로 선정 – 아프리카의 여성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음.[10]	– "아프리카의 여성으로서, 창작자로서 그리고 유니세프(UNICEF)의 대사로서, 나는 매일 젠더 격차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인구의 반을 대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와 기여도는 무시되고 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중 문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에 좋은 방법이다.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힘은 여성들의 세계관을 바꿀 것이고, 젊은 여성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들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 – 이것은 인류 자체에 커다란 혜택을 부여할 것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11]
자료: BBC NEWS AFRICA트위터 2017년 11월 9일		

10) 'Angélique Kidjo:Singing to Educate Africa's Girls' Newsweek 2016년 5월 8일 기사 내용 요약.
11) UNESCO, 2015, 『글로벌 리포트: 문화정책의 재구성』(요약본, 번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6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토론 및 질의 응답]
타자의 시선으로 본 도시재생

유 희 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타자의 시선으로 본 도시재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희동

1. 도시를 만든 자의 욕망이 숨겨진 도시

도시라는 것은 근대화의 산물이고 저는 도시의 모습 중에 도시의 아케이드 같은 것은 마치 제국주의의 노획품들을 살펴보는 시각 선상에 있다고도 보인다. 그래서 서구의 근대화의 성과물은 대상화된 도시의 한 공간으로 존재하는 시각이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결국 도시라는 단어 안에는 이러한 시각이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근원적 모순을 가진 도시의 풍경 속에는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장치 속에서 착취한 전리품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림 1. 인도 식민지 물품을 전시하는 영국 1886년(출처: 인터넷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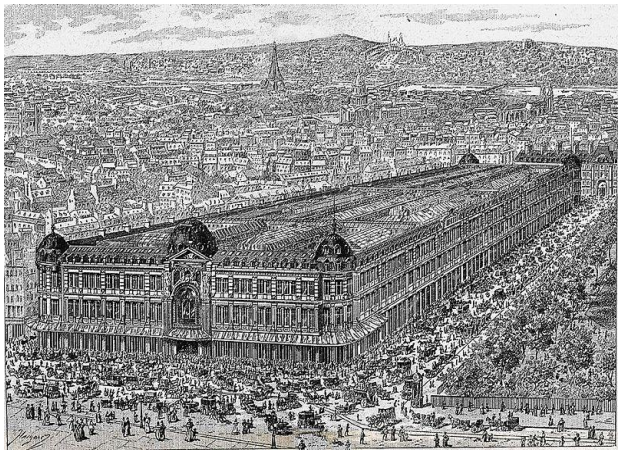


그림 2. 백화점 "Au Bon Marché" 1887년 파리(출처: 인터넷 이미지)

2.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해 한 것은 지워버려야 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많은 외국인이 서울에 올 것을 예상하고 성화 봉송로 따라 진행된 달동네 강제 이주사업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상계동 주민들을 비롯한 서울 200여 곳의 달동네 주민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몇십 년씩 살던 집이 철거되어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전 1971년에는 서울 청계천, 용산에서 쫓겨난 사람 수만명은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의 역학 구조는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2018년 평창 올림픽 관련 용산역 주변이 외국인들에게 부끄럽다고 가림판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기사가 중앙지 신문 1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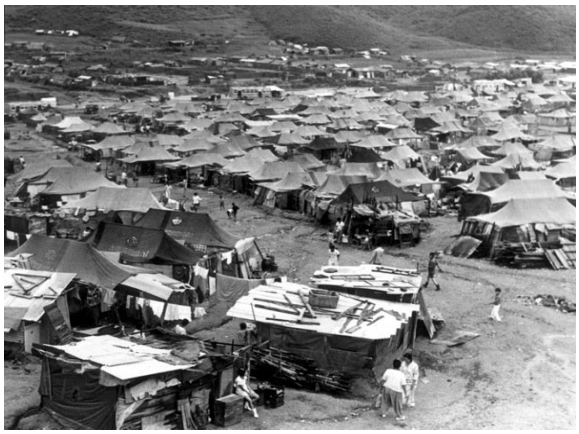


그림 3. 1970년 서울 각지에서 강제로 이주된 빈민들이 당시 경기도 광주 단대리(현재 성남 수정구 단대동)에 조성한 천막촌 ⓒ성남시



그림 4. 1987년 서울 상계동 철거 현장 사진 ⓒ경향신문

3.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전주의 집창촌을 문화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적 사례로 떠오르는 선미촌 관련 한 뉴스는 다음과 같다.

'전주시는 서노송예술촌사업 관련,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원들뿐 아니라 선미촌 인근에 거주하는 노송동 주민들과 선미촌 토지·건물주, 성매매업주 및 종사자 등 선미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 시가 추진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현장 시청을 통해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근거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의료·주거·직업훈련 지원 등도 추진된다.'

그러나 김지나 도시문화칼럼니스트가 쓴 또 다른 기사에는 석연치 않은 독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는 짙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옛 업소들이 비어 있는 채로 방치돼 있었다. 업소 종사자였던 여성들이 써놓은 듯한 대자보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여주는 듯했다. 시티가든은 그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소통과 생계 보호를 호소하고 있었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가 안타까웠다. 원래 이곳에 있던 여성들은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흔히 집창촌을 인생의 종착역이라고들 한다. 집창촌 정비사업을 다루는 기사마다 종사자 여성들의 자활과 업종 전환을 함께 추진했다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림 5. 전주시 내 집창촌인 선미촌에 들어선 현장시청 현판식 ⓒ전주시



그림 6. 전북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선미촌 성매매 여성들이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과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94억원을 들여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 일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4. 무엇을 위한 도시재생인가? (도시를 위한 재생, 사람을 위한 재생)

전주의 사창가는 이전 도시 기능으로 한 부분 차지했지만, 이제는 도시에 전체적인 기능을 위해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나는 도시 기능을 살리고자 역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도시에서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체 속에 숨어있는 남성성은 자신을 야만적이지 않고 지적이고 현대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써 그 사창가를 없애 버리는 것은 아닌가?

주체 혹은 주체적 시선은 대상으로서 도시재생 지역을 바라본다는 시선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고 과잉한다. ‘나는 그곳을 바라보는 주체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의식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깔린 것은 아닐까? 대상으로서의 도시재생, 그래서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서울의 숭인・창신, 부산에 감천마을에서도 나타난다. 그곳에 사람들은 ‘내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인 양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구경거리로 만든다.’ 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경거리로 전락한 대상, 아니 구경거리로 전락한 또 하나의 주체를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배제하려고만 한다.

5. 제주의 도시재생은 어떠한가?

제주도에서 유사한 사례는 현재 주진 중에 있는 무근성 보행가로환경 개선사업에서 보인다. 제주 원도심 관덕정 부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은 제주북초등학교 학교길에 있는 유흥주점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현란한 조명들을 양해를 구하여 단순하게 하거나 디자인을 함께 바꾸고 혹은 그들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과 콘텐츠(레시피) 개발에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전주의 경우 보다 진일보 한 점은 있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함께 하지 못한 여성들을 끝까지 챙기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다행히 다른 사업에서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제주지부와 인화로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이주여성분들에게 기술을 교육하고 그것을 팔 수 있는 상점을 단기간 마련하여 취업의 기회와 자기발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그림 7. 무근성 보행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된 업종전환 사례



그림 8. 사랑의 열매 여성 자립지원프로젝트 모집 포스터

6. 머리 아픈 철학 이야기

타자는 인식 대상이나 객체가 아닌 또 다른 존재이다. 진정한 주체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비로소 재발생하며, '시선을 통해 발견이 아닌 출현한다.' 하지만 타자로부터의 시선은 기존의 주체를 둘러싼 세계관를 파괴한다. 이 시선 간의 충돌에서 해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들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에서 이 논의를 이어간다고 보이며 또한 프랑스의 해체주의 철학자들의 철학적 담론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탈식민 담론, 소수자 문제, 페미니즘의 문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철학자는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이다.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모호하게 남겨둔 '여성'은 주체이자 타자이다. '여성성'의 경험으로부터 서구의 남성중심의 주체성에 내재된 전체주의적 체계는 해체되기 시작한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통해 서구 철학에서 하이데거까지 이어진 존재론적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타자 사유를 통해서 서구 철학적 전통의 지평을 깨뜨리고자 했다. 타자는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주체의 자아동일성 안에 구성된 근대철학의 틀에 비켜난다. 이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타자'를 말한 레비나스 사유의 공헌이다.

7. 결론(마침표)이 아닌 쉼표(과정)

어쩌면 레비나스 이전까지 혹은 아직도 남성들은 여성을 주체적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물질적 대상화, 심지어 여성을 상품으로 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대감을 획득하고 여성의 억압을 유지해나갔다. 이러한 교환의 고리 속에서 잉여가치로서 자유, 평등, 규범, 합리성, 그리고 주체, 의식과 같은 개념들이 파생적으로 생겨났고 이것이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대립각에서의 여성성을 말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고 싶은 것을 위한 폭력적 장치를 실행하는 남성적 주체의 시선을 탈피하고 타자의 시선으로 시선 너머의 주체들을 끌어안고 함께 하는 것으로서의 도시재생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8. 질문 혹은 다 같이 고민하기

- 이 이데올로기적인 남성적 권위에 젠더나 페미니즘적 접근으로 상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또 다른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가 되지 않은지 이러한 접근방식이 도시의 기능적 문제에 필요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여성친화도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안전도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등의 제도사업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들도 또한 도시의 기능에 한 부분으로만 보이는데, 정작 기능적인 부분만을 도시에서 해주는 것인지, 삶을 영위하는 도시에서는 이것들과 달리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다른 측면에서의 것들이 궁금합니다.

- 다른 측면에서 도시의 안전과 공존의 가치를 위한 어떠한 시스템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것을 위한 그 기준이 있을까요? 있으면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까요?

- 제가 주제와 많이 비껴간 도시재생 속의 어떤 담론을 얘기했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시재생에서의 필요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토론 및 질의 응답]
일상의 안전 문제와 안심 생활환경

박 창 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일상의 안전 문제와 안심 생활환경

제주연구원 박창열
cypark@jri.re.kr

○ 최근 제주 모습은 역사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 일례로, 인구유입 증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구도심 공동화, 주택 노후화,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심화 등은 유례없던 현상임

○ 이러한 환경 변화는 제주의 발전과 더불어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는 기대 속에 이뤄져왔음. 그러나 인구유입 및 개발수요 증가 등은 '살기좋은 제주', '삼무도 제주'란 타이틀 이면에 많은 오명을 남기고 있음

- 생활안전/범죄 부문 안전지수(사고 발생건수 등), 주취범죄율 등의 지표는 '안전섬 제주'란 표현의 의문 제기

○ 본 고는 '일상의 안전 문제와 안심 생활환경'이란 주제로 논의하고자 함. 먼저, 제주지역에서 일상의 안전 문제는 크게 생활안전과 범죄를 들 수 있음.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매년 공표)를 보면, 제주지역은 생활안전과 범죄 부문에서 6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생활안전은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를 나타내는데, 사설 구급대가 많지 않고 국내 최대 관광지란 제주의 여건상 119구급대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 2020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해본 바, 제주지역 구조구급건수 DB에는 특이사항이 존재함. 주취로 인한 사고, 상업지역 도로변 사고, 개교상 등이 타지역 대비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은 여성/젠더 관점의 안전 문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줌

- 제주지역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모임문화 개선
- 야간시간대의 상업지역 도로변 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도로변의 가로등 설치 확대 필요
- 개교상 사고 예방을 위해 유기견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및 지역 내 해결방안 모색
- 사고다발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 제주지역 범죄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지역 경제(관광 등) 악

영향뿐만 아니라 도민 삶의 질(불안감 등)과 직결됨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임. 이에 제주경찰청·제주도정은 범죄예방 CCTV 개선, 셉티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왔음. 그럼에도 제주지역 범죄 발생건수는 타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실정임. 통계자료 기반의 원인진단을 통해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 필요(범죄통계 공유 필요)

- 5대 강력범죄 중 절도와 폭력범죄가 95%를 차지하는데, 절도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사고는 여전함
- 범죄예방 사업은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 참여 사업, 객관적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두려움 줄이기 또는 안심체감 관련 사업 등 발굴 필요
- 전통적인 방법인 CCTV, 반사경, 비상벨 등의 설치뿐만 아니라 마을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나타내는 랜드마크시설, 안내표지 등 대책도 필요
- 유흥가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 및 규제 강화 (호주 시드니 유흥가의 야간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도심 유흥가 관리계획' 수립, 2018년 시행→(주요내용)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CCTV 확대설치, 유흥업소의 추가 허가금지, 새벽2시 이후 1인당 주류 판매량의 제한 등)

○ 끝으로, 안심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제주의 또 다른 문제는 이동, 보행 등의 교통 관련 문제를 들 수 있음. 교통 문제는 제주지역의 고질병 중 하나인데, 차량증가에 의한 교통혼잡, 주차난, 보행공간 축소 등의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음. 이러한 특성은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과 상반된 것으로 종합적 관점의 진단이 요구됨

○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함.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연동, 노형동 등의 상업지역에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별도의 보도가 없는 보행환경이 다수 존재함.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이륜차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여성 고령자 운전자인 경우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으로 가 읍면지역의 어두운 도로 또는 농로에서 이륜차 운행시 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 대안 마련 필요

- 사고 예방을 위해 상업지역의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 읍면지역의 도로 또는 농로에서 여성 고령 운전자에 의한 이륜차 사고발생이 잦음으로 안전조끼 지급 및 읍면지역 도로 조명 개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토론 및 질의 응답]
일과 생활의 새로운 상상

홍 유 경 (Lecord 대표)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안녕하세요, ‘LECORD’의 대표 홍유경입니다. 저희는 제주가 품어내는 다양한 가치를 제주 자원인 말가죽에 담아내는 가죽 브랜드입니다. 현재, 제주 말가죽만의 장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으며 메인 관광아이템을 기획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 청년 여성 창업가의 도전

제가 작고도 큰 업적들을 쌓아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내는 소리는 아무리 논리적이고 강경하더라도 작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현실에서 마주해보았을 때, 저희는 1차적으로 제품 기획 단계부터 위와 같은 고난을 겪곤 합니다. 남성들이 주로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죽 공예’의 특성 상, 가죽 재료를 조사하고 구매하는 일부터 여성 혼자의 목소리로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위의 과정을 여러번 겪은 후에, 최근에는 남성 팀원과 함께 대동하여 대부분의 대면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문화 때문에 함께 거래처 미팅을 나갈 때, 문득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에서 여성 창업가로 스타트업 브랜드를 시작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 또한 돌파구라고 생각하며 한발 한발 꾸준히 내딛어가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행보를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뿌리 깊숙이 박힌 무의식의 문화조차 점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동하지 않는 안전장치

이번 포럼을 맞아, 여성친화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 제공, 탈권위적인 사회, 성평등 제도 등 많은 주제가 있었으나 가장 현실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주로 생산 시간에 많은 노동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밤늦은 작업을 주로 하게되는데요. 퇴근 길을 걸을 때면, 매번 주위를 둘러보는 이 행위 자체에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길가에 위치한 가로수마다 위험할 시에 누르는 안전장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궁금증이 생겨 실험삼아 한번 눌러보았던 적이 있으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을 넣었으나 아직까지도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CCTV가 24시간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켜보는 증거의 눈일 뿐이며, 만약 급한 상황이 생길 시에 우리를 보호하는 수

단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순간, 그 상황을 돌파할 만한 신속한 안전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 외에도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이라서 겪게되는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더 이상 약자로 바라보는 시선을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거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발 주자로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을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더 나아가 꿈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돌봄 환경이 사회에 구축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불합리한 것에 불평만 하다가 익숙해지는 현실에 안주하지말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상상

[토론 및 질의 응답]
여성친화도시, 제주의 노력과 과제

이 현 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2021년 제1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2021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포럼 발표

여성친화도시, 제주의 노력과 과제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성평등 평화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Ⅰ.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추진과정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서,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등을 말함

○ 제주는 2011년도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고,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 2차 재지정 되었으며 2022년 3차 재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임

○ 제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을 2021년 3월에 수립하였음.

Ⅱ. 성평등 정책수요 변화에 따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 또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성평등 문화확산 등에 따른 대내외 환경과 정책수요 변화를 반영해 행복을 주요 키워드로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강화를 전략으로 채택하여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대해 세부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성평등 가치를 기반으로 제주의 사회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재정립하는데 의의가 있음.

-성평등정책관은 지난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서에 성평등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협의한 것을 시작으로 성평등 분야가 공식 포함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전문가가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게 됨.

○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반영된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은 안전한 삶과 일, 삶의 균형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의 세부실천사항은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임.

Ⅲ.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투자계획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량 및 가치증진, 함께 혁신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성평등 제도기반 체계화를 4대 목표로 하고 70개의 세부실천과제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5,31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임.

○ 지난 1,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마련된 제도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여성안전과 성평등 인식이 기본이 되는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는

- 성평등 표준 마을 규약 마련과 마을 주민 대상 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평등 마을 조성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경우 지난 해 여성신문사 주관 지방자치단체 '좋은 정책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음.

- 민관협업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44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사업 모니터링 및 여성친화도시 분야 정책제안 등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취약지역 무인 택배 보관함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2020년에 시범 실시하였던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을 4종으로 확대 추진하여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제주 여성안전 수준 향상 및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안전관련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도모로 안전한 제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임
- 민선7기 공약중의 하나인 제주여성의 통합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여성힐링공간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여성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마련중에 있음
- 여성의 정책 결정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도정 주요 위원회 여성참여율 향상을 위한 여성인재 DB를 더욱 확보하고 각 분야에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리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확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제주도는 2021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7개 사업의 세부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음. (주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성범죄 영상물 초기 삭제,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를 지난 3월 3일 개소해 운영하고 있음.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들을 구조하고 자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음.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기관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복지복합건물 조성도 추진중임.

- 언어・신체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도체육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간 3자 업무협약도 체결함.
- 더불어 여성폭력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를 확대(272개소)하고,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도입 등 CCTV통합관제 안전망을 구축한다.
- 디자인을 통해 사전에 범죄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1개소)이 추진된다.

Ⅳ. 주민 체감형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과제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90%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 없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친화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여성 일자리 제공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분야를 1순위로 응답하였음.

-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도 제주는 보건, 복지, 가족 분야 지표는 상위권에 있으나 여성 안전분야와 여성 관리자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앞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제주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을 민·관 협업과 선택과 집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추진성과를 언론 및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도민 인지도 및 체감도 향상시켜 제주 여성친화도시가 제주의 '일상의 문화' 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 해야함.

○ 앞서 발표해주신 내용중 '일상과 돌봄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와 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슬로건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함. 성평등 도시공간의 원칙들 즉,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의 필수 공간전략 안전, 일자리, 돌봄, 커뮤니티, 문화다양성, 주거 문제가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겠음.

Memo

Memo

Memo